

碩士學位論文

# 제주지역 무속복식의 유형과 특성

濟州大學校 大學院

衣類學科

朴 允 錫 氏

2009年 12月

# 제주지역 무속복식의 유형과 특성

指導教授 張 賢 珠

朴 允 설 미

이 論文을 理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12月

朴允설미의 理學 碩士課程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권 영 숙

委 員 장 정 아

委 員 장 현 주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9年 12月

## 국문초록

제주도는 좁은 경작지에 불리한 농업환경으로 자연스럽게 민간신앙에 의지를 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제주도민에게 바다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했다. 따라서 바닷가 마을이나 바다를 상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위협에 대비하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바로 이 행위는 무당굿으로 표출되었다. 이렇듯 많은 신들을 모시고 있는 제주지역은 지리적으로 내륙지방과 멀리 떨어진 입지적 환경과 가뭄, 홍수, 바람의 삼재를 안고 사는 척박한 자연환경에 대해 맞서기 위해 제주만의 독특한 의생활양식이 형성되었다. 무속인들이 착용한 무복 역시 육지의 무복과 차이점을 보일 것이라 생각되며 제주지역의 민간신앙이 크게 발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무복 역시 제주도만의 독창성을 가지며 발달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복식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 중 무속행사를 주관하고 참여하는 제관과 무속인들의 복식을 정리함으로써 이들이 착용한 복식인 무복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주 무복의 유형을 문헌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류하였고 각 복식의 행사별, 성별에 따른 복식의 종류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제주에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무속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무속 행사는 주관하는 주체에 따라 도제, 마을제, 일반굿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제는 제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것으로 탐라국 입춘굿과 건시대제, 영산대제가 있으며, 마을제는 마을의 당신에게 마을 사람들이 합동으로 굿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다시 유교식과 무교식으로 나눌 수 있다. 유교식 마을제로는 포제, 별제, 기우제, 해신제, 제석제가 있으며, 무교식 마을제는 칠머리당 영등굿, 잠수굿 등이 있다. 일반굿은 일반 가정에서 생사, 건강, 죽음 등을 신령에게 축원하는 것을 말하며 무혼굿과 지노귀굿이 대표적인 행사이다.

둘째, 무속행사의 종류별로 특성을 보면 남녀가 모두 주관하는 도제는 제복, 단령, 도포, 쾌자, 두루마기, 저고리·바지/치마차림, 특수복차림을 볼 수 있다. 유교식 마을제 또는 무교식 행사의 구분에 따라 행사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그 지역의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심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식에 차이가 나타난다. 남자만이 주관하는 유교식 마을제에는 유교식 격식을 제대로 갖춘 제복, 단령, 도포차림만 볼 수 있으며 남녀가 모두 주관하는 무교식 마을제 혹은 도제 중 입춘굿에서는 단령, 도포, 쾌자, 두루마기, 저고리바지/치마, 특수복차림을 모두 볼 수 있다.

셋째, 도제에서는 유교식 마을제와 무교식 마을제의 모든 차림을 볼 수 있고 유교식 마을제는 유교식 격식을 제대로 갖춘 제복, 유건과 도포, 흥배가 달린 단

령차림을 볼 수 있다. 반면, 무교식 마을제의 경우는 흥배가 없는 단령이나 도포가 가장 정장차림으로 여기지며 그 외는 행사의 목적에 따라 쾌자, 두루마기, 저고리·바지/치마, 특수복을 착용한다. 일반곳은 심방이 주관을 함으로 무교식 마을제와 그 차림이 같다.

셋째, 남자의 경우 제복차림, 조복차림, 단령차림, 도포차림, 쾌자차림, 두루마기차림, 저고리·바지차림, 특수복차림으로 나눌 수 있다. 제복과 유건과 도포차림은 유교식 마을제의 행사에서 제관들과 집사의 차림이며 조복차림은 도제 중 영산대제의 차림이다. 단령차림은 유교식인지 무교식인지에 따라 흥배가 결정이 되며 무교식에서는 가장 정장차림으로 여겨진다. 도포차림은 단령의 구성 요소와 혼합되어 새로운 형태를 생겨났고, 쾌자차림은 섬수차림이라고도 하며 제주지역 특유의 무복차림으로 질치기, 석살림 등을 할 때의 착용한다. 두루마기차림은 보통 앉아서 하는 곳이나 작은 곳을 할 때 착용한다. 저고리와 바지차림은 주로 소미들의 복장이며, 특수복차림은 곳의 정점을 치솟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옷차림을 하는 것이다.

넷째, 여자의 경우 단령차림, 도포차림, 쾌자차림, 두루마기차림, 저고리·치마차림, 특수복차림으로 나눌 수 있다. 단령차림은 1990년대 이후부터 착용된 것으로 보이며 흑립은 착용하지 못하였다. 도포차림은 단령 대신의 가장 큰 정장차림으로 여겨졌고 쾌자차림에서는 남자 쾌자차림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관을 쓴 할망의 모습이 나타난다. 두루마기차림은 현재 100년 전 사진에서만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에는 의복의 간소화로 인하여 도포로 흡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저고리와 치마차림은 주로 소미들이 비념을 할 때의 차림으로 100년 전 개화기 때에는 치마 길이가 짧아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특수복차림은 남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설화의 내용에 따라 의복이 달라지는데 영등 할망 외에도 큰곳에서는 가면을 쓰고 짚을 엮은 것을 어깨에 두르기도 하고 탈을 쓰고 탈춤을 추기도 한다.

# 목 차

국문초록 .....	3
표목차 .....	7
그림목차 .....	8
I. 서 론 .....	1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1
2. 연구방법 및 내용 .....	13
II. 제주지역 무속의 기원 및 종류 .....	14
III. 제주지역 무속복식의 유형 .....	18
1. 남자복식 .....	18
(1) 제복차림 .....	18
(2) 조복차림 .....	18
(3) 단령차림 .....	20
(4) 도포차림 .....	29
(5) 쾌자차림 .....	31
(6) 두루마기차림 .....	36
(7) 저고리·바지차림 .....	38
(8) 특수복차림 .....	39
2. 여자복식 .....	41
(1) 단령차림 .....	41
(2) 도포차림 .....	42
(3) 쾌자차림 .....	44
(4) 두루마기차림 .....	49
(5) 저고리·치마차림 .....	49
(6) 특수복차림 .....	52

IV. 제주지역 무속복식의 특성 .....	54
1. 제주 무속 행사별 특성 .....	54
2. 성별에 따른 복식 종류별 특성 .....	56
V. 결론 .....	59
참고문헌 .....	63
ABSTRACT .....	67



# 표 목 차

<표 1>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무격에 관한 기록 .....	15
<표 3>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무속관련 행사 및 착용복식 .....	17
<표 3> 제주무속 행사에 착용된 복식의 종류 .....	54
<표 4> 제주무속 행사에 착용한 남·녀 복식의 종류 .....	56
<표 5> 전통적인 단령과 제주 단령의 뒷모습 .....	57
<표 6> 제주무속 행사에 착용되는 패자의 종류 .....	59



## 그림 목차

<그림 1> 건포배은	14
<그림 2> 제주무속의 탄압	14
<그림 3> 제복차림 I	19
<그림 4> 제관+각대+혜+규+행진	19
<그림 5> 제복차림 II	19
<그림 6> 제복차림 III	19
<그림 7> 제복차림 IV	19
<그림 8> 제복차림 V	19
<그림 9> 조복차림	20
<그림 10> 사모+단령차림 I	21
<그림 11> 사모+단령차림 II	21
<그림 12> 후립+단령차림 I	23
<그림 13> 후립+단령차림 II	23
<그림 14> 후립+단령차림 III	23
<그림 15> 후립+단령차림 IV	23
<그림 16> 후립+단령차림 V	23
<그림 17> 후립+단령차림 VI	23
<그림 18> 후립+단령차림 VII	24
<그림 19> 후립+단령차림 VIII	24
<그림 20> 홑단령 I 의 앞	25
<그림 21> 홑단령 I 의 뒤	25
<그림 22> 홑단령 I 의 깃	25
<그림 23> 겹단령의 앞	25
<그림 24> 겹단령의 뒤	25
<그림 25> 겹단령의 깃	25
<그림 26> 홑단령 II 의 앞	25
<그림 27> 홑단령 II 의 깃	25
<그림 28> 홑단령 II 의 뒷무	25
<그림 29> 꿩깃털 및 끈장식 후립	26
<그림 30> 공작깃 장식의 후립	26
<그림 31> 후 립	26
<그림 32> 호수 및 공작털장식	26



<그림 33> 공작털 장식 .....	27
<그림 34> 호수 장식 .....	27
<그림 35> 탕 건 .....	27
<그림 36> 세조대 .....	27
<그림 37> 복두+단령차림 .....	28
<그림 38> 고깔+단령차림 .....	28
<그림 39> 유건+도포차림 I .....	30
<그림 40> 유건+도포차림 II .....	30
<그림 41> 유건+도포차림 III .....	30
<그림 42> 유건+도포차림 IV .....	30
<그림 43> 흑립+도포차림 I .....	31
<그림 44> 흑립+도포차림 II .....	31
<그림 45> 흑립+쾌자차림 I .....	32
<그림 46> 흑립+쾌자차림 II .....	32
<그림 47> 흑립+쾌자차림 III .....	33
<그림 48> 흑립+쾌자차림 IV .....	33
<그림 49> 흑립+쾌자차림 V .....	33
<그림 50> 흑립+쾌자차림 VI .....	33
<그림 51> 흑립+쾌자차림 VII .....	33
<그림 52> 흑립+쾌자차림 VII 의 옆과 뒷모습 .....	33
<그림 53> 쾌 자 .....	34
<그림 54> 전 대 .....	34
<그림 55> 흑립+쾌자+여러겹의 띠차림 I .....	35
<그림 56> 흑립+쾌자+여러겹의 띠차림 II .....	35
<그림 57> 고깔+쾌자차림 I .....	35
<그림 58> 고깔+쾌자차림 II .....	35
<그림 59> 고 깔 .....	35
<그림 60> 고깔+쾌자+군농치메차림 .....	36
<그림 61> 군농치메 .....	36
<그림 62> 흑립+두루마기차림 .....	37
<그림 63> 고깔+두루마기차림 I .....	38
<그림 64> 고깔+두루마기차림 II .....	38
<그림 65> 고깔+두루마기차림 III .....	38
<그림 66> 두루마기 I .....	38
<그림 67> 두루마기 II .....	38
<그림 68> 조끼+저고리+바지차림 .....	39

<그림 69> 고깔+저고리+바지+조끼차림	39
<그림 70> 특수복차림 I	40
<그림 71> 특수복차림 II	40
<그림 72> 특수복차림 III	41
<그림 73> 이명걸이+단령차림	42
<그림 74> 단령의 깃부분	42
<그림 75> 흑립+도포차림	43
<그림 76> 고깔+이명걸이+도포차림 I	44
<그림 77> 고깔+이명걸이+도포차림 II	44
<그림 78> 이명걸이+괘자차림 I	45
<그림 79> 이명걸이+괘자차림 II	45
<그림 80> 이명걸이+괘자차림 III	45
<그림 81> 괘 자	45
<그림 82> 괘자의 깃과 옆부분	45
<그림 83> 흑립+이명걸이+괘자차림	46
<그림 84> 고깔+괘자차림 I	46
<그림 85> 고깔+괘자차림 II	46
<그림 86> 고깔+괘자차림 III	46
<그림 87> 고깔+이명걸이+괘자+군농치메차림 I	47
<그림 88> 고깔+이명걸이+괘자+군농치메차림 II	47
<그림 89> 관+괘자차림	48
<그림 90> 3층 정자관	48
<그림 91> 단층 정자관	48
<그림 92> 이명걸이+괘자+여러겹의 띠차림	48
<그림 93> 이명걸이+두루마기차림	49
<그림 94> 저고리+치마차림 I	50
<그림 95> 저고리+치마차림 II	50
<그림 96> 저고리+치마차림 III	51
<그림 97> 저고리+치마차림 IV	51
<그림 98> 고깔+저고리+치마차림	51
<그림 99> 머리수건+저고리+치마차림 I	52
<그림 100> 머리수건+저고리+치마차림 II	52
<그림 101> 초립+가면+저고리+바지차림	53
<그림 102> 가면+저고리+치마차림 I	53
<그림 103> 가면+저고리+치마차림 II	53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주도지(2006)에 의하면 제주도는 좁은 경작지에 불리한 농업환경으로 인하여 흉년이 겹쳐 굶어 죽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감귤이 익기도 전에 관리들이 장부를 들고 나와 감귤 나무마다 그 열매의 수를 일일이 세어 기록해 두었다가 징수하였다. 또한 전복 등의 해산물 진상과 한라산 곳곳에서 생산되는 약재의 진상 등 도민들의 경제적 처지는 매우 불안하였고 삶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또한 성종 원년(1470년)부터 인조 2년(1624년)까지 약 150년 동안 왜구의 습격과 무역의 과중, 관리의 수탈로 인해 난민들이 도외로 유망하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왕족과 친척 관계라고 하여도 출륙을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폐쇄된 생활을 지속하여야 하였다(조선왕조실록).

이러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제주도민들은 민간신앙에 의지를 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제주도민에게 바다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했다. 어부들만이 아니라 육지로 왕래해야 할 관리들이나 장사꾼들에게도 바다는 두려운 곳이었다. 따라서 바닷가 마을이나 바다를 상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위협에 대비하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바로 이 행위는 무당굿으로 표출되었다. 이에 바닷가에서는 불행한 일에 대한 미연의 방지책 또는 바다에서 죽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함으로 천도굿이나 잠수굿 등 각 절기에 맞춰 많은 굿이 행해졌던 것이다.

이렇게 민간신앙이 성행하게 되자 많은 폐해를 낳았는데 이같은 풍습을 잠재우기 위해 일어났던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조선시대 숙종 28년(1702년) 이형상 목사가 제주지역의 순력행사장면과 자연, 역사, 풍속 등을 화공 김남길에게 그리게 한 화첩인 「탐라순력도」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다. 이 책의 내용 중 「건포배은」이라는 행사 그림에 이르기를 당시 이형상 목사에 의해 불타 없어진 신당은 129곳, 훼손된 사찰은 5곳이며, 무격 285명은 농업을 본업으로 삼도록 조치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민간신앙에 대한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이리하여 예부터 제주에는 많은 신당의 터가 자리 잡고 있었고 아직도 신당으로 찾아가 당신에게 안녕을 기원하기도 한다. 제주도는 무속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고 일상적인 삶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이다. 현재 제주도는 18,000신, 굿 형태는 12분풀이, 굿의 종류는 20종류이며 제주 내 무속인과 육지에서 온 무속인을 합하면 600~700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렇듯 많은 신들을 모시고 있는 제주지역은 지리적으로 내륙지방과 멀리 떨어진 입지적 환경과 가뭄, 홍수, 바람의 삼재를 안고 사는 척박한 자연환경에 대해 맞서기 위해 제주만의 독특한 의생활양식이 형성되었다. 무속인들이 착용한 무복 역시 육지의 무속인들의 복식과 차이점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육지에 비해 크게 다양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제주지역의 민간신앙이 크게 발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무복 역시 제주도만의 독창성을 가지고 발달했을 것이다.

현재 제주도의 무속에 관한 선행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이러한 무속의 형태를 보존하고자 칠머리 당굿 등이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보존회가 생김에 따라 이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심방이 죽으면 땅에 묻거나 불에 태워버리므로 일반 복식과는 그 접근이 쉽지 않다. 또한 무속복식에 관한 연구는 무속 연구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져 의복의 종류만 언급되고 있을 뿐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복식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 중 무속행사를 주관하고 참여하는 제관과 무속인들의 복식을 정리함으로써 이들이 착용한 복식인 무복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제주지역의 다양한 무속 관련행사를 정리하고 이 행사의 목적에 따라 착용하는 무속인들의 옷차림의 유형과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및 내용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고찰과 실증 고찰을 병행하였다.

	문헌고찰	실증고찰
연구 방법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탐라순력도」, 「남환박물관(南宦博物)」, 「제주도지」 등 제주 무속과 관련된 문헌을 중심으로 무속 행사에 따른 무속 복식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제주 민속 박물관>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삼성혈>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 22점과 심방과의 대담 및 ‘칠머리당 영등굿’, ‘2009 탐라국 입춘굿 놀이’ ‘설문대 할망제’, ‘제주 큰굿’ 등을 직접 관찰 조사하여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무복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5장으로 구성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I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밝히고 연구 방법 및 내용을 제시하였다.

II장에서는 제주지역의 무속의 기원과 종류, 개념을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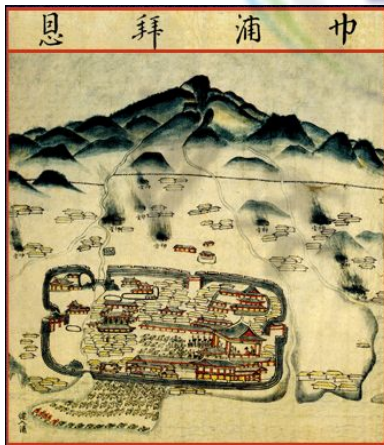
III장에서는 제주지역 무속복식의 유형을 분류하고 특징을 서술하였다.

IV장에서는 유형으로 분류한 제주지역의 무속복식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고 제언하였다.

## II. 제주지역 무속의 기원 및 종류

오늘날에도 제주지역에서는 민간신앙 의례의 주요한 담당자로서 부락의 공적 제의나 사적인 주술적인 부분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런 민간신앙은 예부터 내려온 것으로 어떤 대상을 신적인 의미로 부여하여 그곳에 당을 세우고 숭배하였다. 「동국여지승람」은 제주 풍속에 대체로 산, 숲, 냇물, 연못, 언덕 등이 있는 곳에다 고루 신당을 만들어 놓아 매년 설날부터정월 보름까지 무격이 신독(神籙)을 받들고 나희(儺戲)를 행할 때 사람들이 다투어 재물과 곡식을 내놓아 굿을 하였다고 기록한다. 또한 「제주 풍토록」에서 제주인들은 음사를 숭상하여 산의 숲, 하얗록한못, 구릉 물가나 평지에 목석(木石)같이 신당을 설치하여, 매년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 무당과 박수가 같이 신(神)을 받들었다고 전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탐라순력도」의 건포배은에는 미신(迷信)이 성행을 하여 집집마다 설위(設位)하고 곳곳마다 입사(立祠)해 봉소하는 풍습이 내륙 지방에 비해 일 백배나 되었으나 생활을 돌보지 않고 무속에만 전념하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하여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형상 제주 목사가 숙종 28년 1702년 12월 20일에 신당을 불태우고 무당을 농업으로 돌려놓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그림 1). 이렇듯 무속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었는데 1970년경 새마을운동이 일어나면서 무속과 심방을 미신으로 치부하여 무속 행사 시 사용되는 무구들을 압수하기도 하기도 하였다(그림 2). 이렇게 우리는 제주인들의 삶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무속이 조선시대에도 성행을 했던 것을 문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밖의 조선시대의 기록에 나타난 제주지역 무속 관련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그림 2> 건포배은  
(탐라순력도, p. 97)



<그림 3> 제주무속의 탄압  
(사진으로 보는 제주 100년, p. 167)

<표 1>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무격에 관한 기록

연대	내용	출처
태종 (1418)	태종 18년(1418) 4월 11일(신묘) 예조에서 제주(濟州)의 문선왕 석전제(文宣王釋奠祭) 의식과 한라산제(漢拏山祭) 의식을 올렸는데 석전제 의식은 각도 계수관(界首官)의 예(例)에 의하고 한라산제는 나주(羅州) 금성산(錦城山)의 예에 의하여 여러 사전(祀典)에 신고 봄, 가을에 제사지내게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태종 035 18 04 11(신묘)
세종 (1423)	세종 6년(1423) 9월 21일(계사) 제주에 사는 전 사정 고순의의 처 장이가 숙부 김언의 전처 자식 김진외와 간통하여, 김언·진외와 공모하고 순의를 죽이려 하여, 사람을 죽이기 위해 무녀 울덕과 집종을 시켜 머리카락으로 몸 형상을 만들어 신사에 갖다 놓고 방술을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025 06 09 21(계사)
세조 (1466)	세조 12년(1466) 7월 27일(병신) 제주목사 강우문이 당(堂)을 소각하였으나 강우문이 말을 꾸며서 이 같은 일이 생긴 사정을 알아 치죄하고 당신(堂神)은 옛날처럼 치사(致祀)하라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세조 039 12 07 27(병신)
효종 (1653)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기를 제주 풍속에 대체로 산, 숲, 냇물, 연못, 언덕, 물가, 평지의 나무나 돌이 있는 곳에다 고루 신당을 만들어 놓는다. 그리하여 매년 설날부터 정월 보름까지 무격이 신독(神籙)을 받들고 나희(難戲)를 행한다. 징과 북을 울리며 안내하여 동리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투어 재물과 곡식을 내놓아 굿을 한다’	탐라지 (역주), 이원진 pp.24-25.
	‘제주풍토록’에 “사당의 귀신을 지나치게 숭상하고, 남무가 매우 많다. 그들은 재앙과 화를 미친다고 사람들을 위협하여 마치 흙을 주워 담듯이 재물을 빼앗는다. 제주 지방의 명절. 초하루와 보름, 칠칠일과 같은 삼칠일에는 반드시 집승을 잡아 신당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숙종 (1702)	제주 백성들은 음식을 지극히 숭상했다. 이곳 사람들은 병이 들어도 약을 복용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진상성도 바람을 기다릴 때 역시 당에 하직을 한다. 이형사 목사 때에도 이 풍속은 없어지지 않았는데 집집마다 설위하고 곳곳마다 입사해 봉송하는 버릇이 내륙지방에 비해 1백배나 된다 했다. 이런 까닭에 무당들은 양양하게 백성을 부리는데 이들은 스스로 당한(當漢)이라 칭해 상호 결계해 그 수가 1천명이 넘는다고 했다. 이들은 마을에서 털어먹기도 하고 혹은 신당에서 소를 잡아먹기도 하며 나아가 우마와 전답을 약탈하기까지 한다 했다. 이를 두고 김정은 <제주풍토록>에서 이들이 재화로 공갈해 재물을 취함이 마치 흙을 굶어모으는 것 같다고 적었다	탐라순력도 산책, 김우순, pp. 225-226.
	숙종 28년(1702) 제주목사 이형상이 부임하여 제주의 신당 129곳을 불태우고 사찰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커다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그림이 건포배운이다. 이때 무격 285명으로 하여금 농업을 본업으로 삼도록 조치하였다.	탐라순력도, 이형상/김남길 p. 97.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무격(巫覡)을 무당, 만신, 박수, 당골, 무녀 등으로 지역 및 성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제주도에서는 ‘심방’이라고 통칭한다. 현용준(2007)의 연구에 따르면 심방이란 말은 ‘신의 성방’이라 불리어서 ‘신방’의

자음동화 인 듯하며 무속의례 행사인 모든 곳을 행하는 무격의 통칭한다고 하였고 진성기(2003)는 심방의 어원이 ‘심’과 ‘방’의 합쳐진 이름으로 보아, ‘심’은 ‘잡음’(붓 잡는것, 또는 고정시키는 것, 혹은 만나는 것을 뜻하고 ‘방’은 존칭대명사의 어미로 ‘신령을 만나는 이’ 또는 ‘신령을 찾는 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심방은 크게 ‘심방’과 ‘삼승 할망’으로 나누고, 또 ‘심방’을 곳을 주관하는 ‘큰 심방’과 작은 곳이나 비념을 맡는 ‘소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삼승 할망’은 입산부의 해산을 돕는 조산원 역할과 소아의 치병 건강을 기원하는 소규모의 애기비념을 해 준다(정주근, 2001). 심방은 심방의 자격을 부여받는 ‘신곳’을 통해 ‘소미’가 ‘작은 심방’을 거쳐 ‘큰 심방’이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곳을 할 수 있는 직권은 없지만 심방이 곳을 할 때 옆에서 장구와 징, 북 등을 치는 ‘제비(쩍이)’가 있다. 이런 제주지역의 심방들은 예전부터 제주도민의 주술적, 종교적 직능자로서 생활의 여러 방면에 커다란 기능을 해 왔다.

본 연구자는 제주의 무속을 주관하는 주체에 따라 도제, 마을제, 일반곳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에게 제의를 베풀면서 인간이 소망하는 바를 기원하기 위해서 행하고 제주도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는 입춘곳과 건시대제, 영산대제는 관청에서 주로 주관하는 제주도제이다. 영산대제는 불교의식이지만 관청에서 주관을 하고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은 염원하고 제주도의 발전을 기원하기 때문에 도제에 포함하였다.

마을제는 마을을 수호하는 당신에 대해 마을 사람들이 합동으로 당에서 하는 곳으로 대상이 되는 신이 각 마을마다 모두 다르므로 그에 따른 의례 내용도 다르다. 이것은 유교식 마을제와 무교식 마을제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교식 마을제는 유교식 제법에 따라 거행되며 남자 유지가 주관하고, 무교식 마을제는 주로 마을의 여성에 의해 관리되며 심방의 무속의례방식에 따라 거행한다. 유교식 마을제의 대표적인 것은 포제로 제의 순서는 전폐례-초헌례-독축-아헌례-종헌례-음복-철변두-분폐의 순으로 진행되며 마을제, 포제, 이사제, 동사제 등으로 불려지고 혹정혹해(或丁或亥)라 하여 입춘 후척 정일 또는 해일 자시에 제를 지낸다. 무교식 마을제(당곳)은 심방이 주관을 하고 마을 사람들이 참관하며 마을의 신당에서 정해진 날 대개 하루 동안 제의를 베풀는데 그 중 칠머리당 영등곳은 음력 2월 1일에 영등을 맞는 영등환영제를 시작으로 음력 2월 15일 영등을 떠나보내는 영등 송별제를 끝으로 보름동안 치성을 들이는 가장 대표적인 무교식 마을제이다.

마지막으로 일반곳은 일반 가정에서 생사(生死), 질병(疾病), 생업(生業) 등 여러 가지 기회에 이것들을 차지한 신령들을 청해 축원하는 목적과 그 대상이 되는 신이 같으므로 시기가 같은 곳(현용준, 2007)이며, 해녀들이 물질 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때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무혼곳이 가장 대표적이다.

제주지역에서 행해지는 대표적인 무속관련 행사 및 착용 복식은 <표 2>와 같다.



<표 3>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무속관련 행사 및 착용복식

		일시	행사목적	복식			
				제관	심방		
					남	여	
도 제	입춘굿	음력 2/4 경	일종의 풍년제로서 제주목이었던 제주관아에서 목사를 비롯한 관리들과 무당이 함께 행해 오던 것으로 관청이 주관함. 농사짓는 행위를 재현.	제복, 도포 제복, 도포	단령, 쾌자, 두루마기, 저고리 /마지	도포, 두루마기, 쾌자, 저고리 /치마	
	건시대제	12/10	제주도민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는 제주도제로 마을제의 기본원형이 됨.	도포	-	-	
	영산대제	-	제주도의 발전과 조국통일을 기원하는 제주도제, 제주도가 주관하고 제주불교 본사 관음사가 주최	조복 단령	-	-	
	설문대 할망제	5/15-5/17	제주도의 형성에 관한 개치있고 기발한 상상력이 담겨있는 설문대 할망에 관한 전설을 주제로 개최.	저고리 /치마	-	쾌자, 저고리 /치마	
마을 제	유 교 식	포제	정월上丁日 (亥日)⇒ 정포제 칠월上丁日 (亥日)⇒ 농포제	정월의 마을제를 이사제 또는 이포제라고 하고 8월의 마을제를 초제 또는 농포제라고 함. 마을의 수호신을 위한 의례.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 특히 농포제는 농사와 관련된 마을제.	제복, 단령 (홍배), 도포	-	
		영등굿	음력 2/1~2/15 (현재는 2/14 혹은 2/15 하루만)	어부와 해녀의 수호신인 영등 할망과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 우순 풍조를 기원함.	-	단령, 도포, 쾌자, 저고리 /마지, 두루마기, 특수복	
	무 교 식	잠수굿	음력 3/8	해녀들의 해상안전과 풍요를 기원함.	-	-	단령, 쾌자, 특수복
		마불림제	음력 7/13 혹은 7/15	곡기 성장기에 풍통과 우마 증식을 기원함.	-	단령, 도포, 쾌자,	-
		신과세제	음력 1/1~1/15	신년과세 문안과 신년의 초복을 기원	-	저고리 /마지, 두루마기, 특수복	저고리 /치마
		시만곡 대제	음력 9월 혹은 10월	곡식을 수확한 후 새 곡식으로 재물을 마련해 감사의 표현(서양의 추수감사제와 같은 의미)	-	두루마기, 특수복	-
	일 반 굿	무혼굿	장례식 전 (시신 미발 건시) 혹은 직후	잠수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은 해녀의 영혼을 물에서 건져내어 위로하고 한을 풀고 슬픔을 표현	-	단령, 쾌자, 저고리/ 마지, 두루마기, 특수복	-
		지노귀굿	죽은 지 2~ 3년이내	죽은 사람의 영혼을 타계(他界) 또는 극락세계로 보내는 의식	-	두루마기, 특수복	특수복
질침굿		필요시	생산의례 중 풍어(豐漁)를 기원	-	-	-	

### Ⅲ. 제주지역 무속복식의 유형

행사의 목적에 따라 무속행사를 주관하는 이들인 제관 및 심방들이 착용한 옷차림도 달랐으며 남자 복식과 여자복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남자복식

남자의 경우는 길옷에 따라 제복차림, 조복차림, 단령차림, 도포차림, 쾌자차림, 두루마기차림, 저고리·바지차림, 특수복차림의 8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차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제복차림

제주에서 현재 볼 수 있는 유교식 마을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포제를 들 수 있는데 포제는 마을마다 이포제, 거릿제, 동네제 등으로 불리며 남자 제관들에 의해 정월 또는 칠월에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농사의 풍농을 기원한다. 이 때 착용하는 옷을 제복이라 하는데 조선시대의 전통제복은 왕이 면복을 입고 종묘와 사직에 제사를 지낼 때 신하들이 입고 참석하던 옷으로서 제사에 참여하는 제관과 향관만 입을 수 있었다. 제복은 제관, 청초의, 적초상, 백초중단, 폐술, 대대, 혁대, 쾌옥, 수, 백말, 혜, 홀, 방심곡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은 제주 삼성혈에 소장되어 있는 제복으로서 삼헌관인 초헌관, 아헌관, 중헌관이 삼성후손(三姓後孫)들이 삼신인[三神人 : 고을나(高乙那), 양을나(良乙那), 부을나(夫乙那)]에게 제사를 모시는 춘, 추대제나 포제의 원형이 되는 건시대제를 지낼 때 착용하는 제복이다. 건시대제는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주도제로서 제주시에 위치한 삼성혈에서 매 해 12월 10일에 봉행된다. 이 때 초헌관은 7량인 제관, 아헌관은 6량, 중헌관은 5량의 제관을 쓰고 제를 지낸다. <그림 4>는 초헌관이 쓰는 7량의 제관과 각대, 혜, 규, 행전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림 5>는 도제 중 건시대제가 제주 삼성혈 일대에서 봉행되고 있는 모습을 복원한 것으로 삼성혈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형이다. 실제로 <그림 6>을 통해 2008년 12월 10일 행해진 건시대제를 볼 수 있다. 초헌관인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뒤로 아헌관, 중헌관이 제복차림을 하고 따르는 모습이다. <그림 7>은 제주시 건입동 마을포제 때 기념촬영을 한 것으로 건시대제는 달리 7명의 제관이 제복차림을 하고 있다. 이 밖에 제주도에서 주관하는 무자

년 탐라국 입춘굿 놀이 전야행사 중 제주 시청 일원에서 제를 지내는 모습을 담은 <그림 8>은 유교식 마을제의 성격과 당굿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원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래와 같은 제복차림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4> 제복차림 I  
(제주 삼성혈 소장)



<그림 5> 제관+각대+혜+규+행진  
(제주시 삼성혈 소장)



<그림 6> 제복차림 II  
(제주 삼성혈 소장)



<그림 7> 제복차림 III  
제주 삼성혈서 탐라시조 건시대제 봉행(2009.02.05)  
<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65084>



<그림 8> 제복차림 IV  
건입동 마을 포제(2008.02.21),  
2009.09.17 <http://blog.daum.net/0196928000/>



<그림 9> 제복차림 V  
탐라국 입춘굿 놀이 초대,(2009.02.05),  
2009.09.14, <http://cafe.daum.net/hansupoolbook>

## (2) 조복차림

조선시대 조복은 왕이 면복을 입고 제사를 지낼 때 백관이 입고 참가하는 옷으로 경축일, 정월 초하루, 성절, 동지, 조칙을 반포할 때 입으며 금관조복(金冠朝服)이라고도 한다. 양관에 적초의, 적초상, 적초 중단, 폐슬, 대대, 혁대, 패옥, 후수, 말, 혜, 홀로 이루어지고 품계에 따라 양관의 양수(梁數), 수의 수문(繡紋)과 환(環)의 재료, 대(帶)와 홀의 재료, 패옥의 색 등을 엄격하게 구분하였다(문화관광부·한국복식문화 2000년 조직위원회, 2001). 제주지역의 무속행사에서도 이런 차림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9>는 2006년 제7회 한라산 영산대제의 모습으로 영산대제는 제주도의 발전과 조국통일을 기원하는 행사로서 제주불교본사 관음사에서 주최하고 제주도에서 주관하는 도제이다. 이날은 제주도지사와 제주시장, 서귀포 시장이 제관들이 되어 제사를 지내는데 금관을 쓰고 청초중단과 수구단에는 옷 전체에 금박을 한 적초의, 대를 두르고 금관을 썼으며, 전면에 둥근 문양 있는 적초 폐슬과 패옥, 후수를 두르고 백말, 혜, 홀을 들고 방심곡령을 착용하였다.



<그림 10> 조복차림

2006 제주 한라산관음사  
영산대제(2008.06.16)

<http://blog.naver.com/kskim5?Redirect=Log&logNo=90049988759>

### (3) 단령차림

유교식 마을제인 포제 및 무교식 마을제의 칠머리당 영등굿에서 신을 청하는 초감제와 제일 높은 신인 시왕을 맞이하는 시왕맞이, 그리고 큰굿에서 남자 제관 및 심방들이 입는 정장차림으로 제주 특유의 무복 형태이다. 이 차림을 제주도에 서는 흔히 ‘관디차림’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관리들의 상복인 관복차림, 즉 관대에서 온 말로 여겨진다. 전통적인 관복이라 하면 흥배가 있는 단령에 사모관대차림이지만 제주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도포차림을 관복 차림이라 일컬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조사한 바 제주지역에서 무복으로 사용되는 도포는 육지에서 단령이라 하는 의복과 같은 형태의 의복을 지칭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령차림에는 사모, 흥립, 복두, 고깔과 단령을 착용한 4종류로 구분이 된다.

#### ① 사모+(흥배가 부착된)단령

매년 12월 10일이 되면 제주 삼성혈에서 고,부,양 삼신을 기리는 건시대제가 행하는데 이때 제를 진행하는 집사는 사모와 흥배가 부착이 된 청색 단령을 착용한 모습이다. 이 건시대제는 도제 중 하나로서 유교식 마을제의 원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유교적 의례방식에 의해 남성의 유지가 제관이 되어 포제를 거행한다(그림 10). 이는 비교적 격식을 갖춘 차림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흥배를 부착한 것으로 보아 신분이 높은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1> 역시 남읍리 마을제의 모습으로 다른 제관이 흥배가 부착된 단령과 사모관대를 착용하였다



<그림11>사모+단령차림 I

제주 삼성혈서 탐라시조  
건시대제 봉행,(2009.06.16)  
<http://www.ijejutoday.com>



<그림 12> 사모+단령차림 II

송당,남읍리 마을제 이달 7,11일 열려(2009.02.06),  
<http://www.issuejeju.com>

## ② (호수 및 공작털) 흑립+단령

사모+단령 차림과 달리 심방이 주관하는 무교식 마을제에서 흑립+단령차림을 볼 수 있다. 이 때 흑립에는 호수 및 공작털로 장식하기도 했으며 단령에는 흥배를 부착하지 않은 채 착용하였고 세조대 및 행전을 차는 차림이다. 이는 신분이 낮은 심방은 흥배를 부착하지 못하지만 가장 정장차림을 하기 위해 단령을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착용하는 단령은 깃 모양이 둥근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에서는 ‘도포’ 혹은 ‘관디차림’이라고 혼용되어 불리고 있다.

<그림 12>는 1960년대 ‘질침굿’을 하는 문성남 심방의 모습으로 질침굿이란 일반곳의 하나로 원통하게 죽은 사람, 액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은 쉽사리 저승으로 들어가지 못하므로 원통한 영혼들이 저승으로 안심해서 들어가도록 좋은 길을 인도해 주는 굿으로 ‘귀양풀이’라고도 한다(진성기, 2008). 문성남 심방은 흑립에 사소재로 되어 있는 단령을 입고 세조대를 착용하고 흑립을 쓰고 있다. <그림 13>은 큰굿 기능 보유자인 이중춘 심방의 모습으로 큰굿은 2001년 8월 16일 제주도 중요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었으며 심방집에서 하는 신굿과 가정집에서 이루어지는 사가굿으로 나뉘며 주로 7일간 행해진다. 이중춘 심방은 흑립을 쓰고 흥색 얇은 사조직의 단령을 입고 세조대를 띄고 바지에 행전을 두르고 있다. <그림 14>는 24절기 중 입춘에 제주시 관덕정에서 열린 탐라국 입춘굿 중 김윤수 심방이 신구세관이 갈리는 ‘신구간’이 지나고 새봄맞이 준비를 하는 ‘새철 드는 날’에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새로 부임하는 1만 8천 신들의 지상강림을 기원하는 초감제 때 착용한 단령차림이다. 김 심방은 저고리와 바지, 두루마기와 쾌자를 입고 그 위에 흥색의 단령(관디)을 착용하였으며 세조대와 행전, 흑립을 썼다. <그림 15>는 김윤수 심방의 또 다른 단령차림으로 칠머리당 영등굿 때의 무복이며 입춘굿 때와 같은 복식이지만 호수 및 꿩깃을 꽂은 흑립을 쓰고 소매와 앞, 뒷자락에 채회기법을 이용한 원형 장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같은 단령차림이지만 흑립에 장식을 달리하여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림 16>과 같이 2009년 9월 12일 제주시 관덕정 일대에서 칠머리당 영등굿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심방의 모습처럼 호수가 아닌 공작깃을 꽂은 흑립과 흥색사로 된 단령을 입는다. 이 외에 <그림 17>은 단령의 앞자락에 화려한 꽃모양을 자수기법으로 장식을 하였고 머리에는 장식이 없는 흑립을 썼다. 이는 강대원 심방의 무복이다.



<그림 13> 흑립+단령차림 I  
(복을 비는 사람들, p. 199)



<그림 14> 흑립+단령차림 II  
(와치와 바치, p. 96)



<그림 15> 흑립+단령차림 III  
(탐라국 입춘굿 놀이 장면)



<그림 16> 흑립+단령차림 IV  
(칠머리당 영등굿 장면)



<그림 17> 흑립+단령차림 V  
세계문화유산등재 비나이다  
(2009.09.12), 2009.10.12,  
<http://www.news.naver.com>



<그림 18> 흑립+단령차림 VI  
(인관과 신령을 잇는 상징무구,  
p. 456)

이 밖에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내왓당 무신도 중 남신에게서도 위와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 복식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림 18>은 10신 중 ‘원망위’의 차림으로 흑립에 붉은색 선을 두른 녹색 포에 청색과 흰 띠를 두르고 목에도 역시 붉은색 선을 댄 목수건을 하고 있으며 검은색 목화를 신었다. <그림 19>는 ‘천자위’의 모습으로 흑립을 쓰고 청색과 녹색으로 선이 둘러진 홍색 포를 입었으며 허리에는 ‘원망위’와 마찬가지로 띠를 두르고 있는데 이 띠의 끝부분을 보면 수술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세조대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신은 검은색 목

화를 신었으며 목에는 목수건을 하고 있다. 이 목수건으로 하여금 깃의 형태를 확실히 알 수 없어 포인지 단령인지 알 수 없지만 흑립과 목화를 보아 단령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19> 흑립+단령차림 VII  
(제주대학교 박물관 소장)



<그림 20> 흑립+단령차림 VIII  
(제주대학교 박물관 소장)

현재 <그림 20-22>는 제주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홍색 홀 단령으로 제주지역에서는 도포라고 불렀던 무복이다. 소재는 진주사이며 깃 모양은 둥글고 밑단에는 안쪽으로 걸감과 보색인 청색선이 둘러져 있으며 <그림 21>은 단령의 뒷모습으로 무가 달려있지만 전면이 모두 막혀있는 전형적인 단령의 뒷모습이며 <그림 22>는 단령의 깃 모습으로 매듭단추로 여미었다.

<그림 23-25>는 문채봉 심방의 단령으로 겹으로 되어 있다. <그림 24>는 단령의 뒷모습으로 전형적인 단령과는 달리 뒷자락이 트여 있고 그 위에 전삼이 달려 있어 도포와 단령의 구성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단령의 모습이다. 단령의 깃 부분은 깃의 가장자리에 흑색 천으로 바이어스 처리를 하여 색을 달리함으로써 장식성을 더해 주었고 보통 홍색을 추구하는 다른 심방들과는 달리 특이하게 주황색으로 단령을 만들어 졌는데 이것은 심방들의 개인 특성과 개성에 따라 다양한 색을 구사함을 알 수 있다(그림 25). 본 연구자는 깃의 형태에 따라 포의 종류를 구분하였으므로 본 포를 단령에 포함하였다.

<그림 26-28>은 제주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마포 홀 단령으로 쪽색이며 오랜 시간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변색이 되었다. 뒷무는 겨드랑이부터 끝단까지 모두 트여 있는데 이는 곳을 할 때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활동하기 편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깃은 단령깃이며, 무의 윗부분의 한 모서리를 접어서 그 위에 상침을 해 놓았다.





<그림 21> 훌단령 I 의 앞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22> 훌단령 I 의 뒤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23> 훌단령 I 의 깃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24> 겹단령의 앞  
(개인소장)



<그림 25> 겹단령의 뒤  
(개인소장)



<그림 26> 겹단령의 깃  
(개인소장)



<그림 27> 훌단령II의 앞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28> 훌단령II의 깃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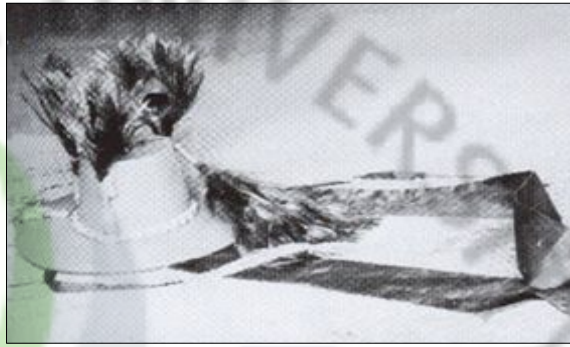
<그림 29> 훌단령II의 뒷부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굿을 진행 할 때 다양한 형태의 장식과 함께 흑립을 착용하는데 <그림 29>는 김윤수 심방이 2008년 탐라문화제 때 영등굿을 재현할 때 썼던 흑립으로 평의 깃털을 양 모체에 달고 술이 달린 끈을 모체에 두른 흑립이며, <그림 30>은 1960년대에 사용이 되어졌던 흑립의 모습으로 공작털을 모체에 달아 아주 화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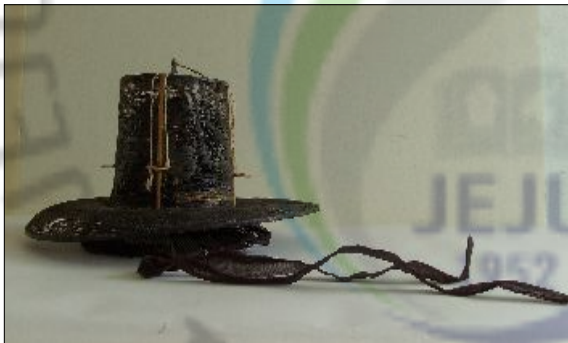
하게 장식을 하였다. <그림 31>은 제주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익명의 심방의 흑립으로 양태의 너비는 10cm, 높이는 13cm이며 대나무와 면사를 사용하여 세 군대에 호수를 고정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32>는 호수와 공작털과 호수를 모두 부착한 흑립으로 호수 흑립은 큰곳 때 심방이 정장으로 쓴다. <그림 33>은 흑립에 장식을 한 공작털이며 <그림 34>는 호수의 모습으로 22cm이다. <그림 35>는 흑립 밑에 쓰는 탕건이며, <그림 36>은 단령 위에 매는 세조대로 길이는 약 341cm이다.



<그림30> 평깃털 및 끈장식 흑립  
(칠머리당 영등굿 장면)



<그림 31> 공작깃 장식의 흑립  
(복을 비는 사람들, p.159)



<그림 32> 흑 립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33> 호수 및 공작털장식  
흑립(제주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34> 공작털 장식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35> 호수 장식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36> 탕 건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37> 세조대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 ③ 복두+단령

공복(公服)은 초하루, 보름, 조희, 동지에 왕세자에게 백관이 하례를 할 때 입었던 옷으로 제복과 조복 다음 격식을 갖춘 차림이다. 이 공복차림은 복두, 포, 대, 홀, 화로 이루어지며 포의 색과 홀의 재료에 따라 품계의 상하를 가렸다(문화관광부·한국복식문화 2000년 조직위원회, 2001). 복두는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쓰던 관으로 통일 신라 시대에는 왕과 관리 모두 복두를 착용하였고 고려 시대에는 송나라의 평각복두(平脚幘頭)를 사용하였는데 왕을 비롯하여 신하·노복·군졸들이 모두 착용하였으며, 특히 광종(光宗) 이후에는 과거 급제자가 홍패를 받을 때 착용하였다. 복두의 종류로는 전각복두(展脚幘頭), 금화곡각복두(金花曲脚幘頭), 권착복두(圈着幘頭) 등이 있었다.

이처럼 복두와 단령을 착용한 모습을 관음사에서 펼쳐진 영산대제의 제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제관은 전면에 원형의 부금이 되어져 있으며 흉배가 없는 자색 단령과 복두를 쓰고 홀을 들고 있다(그림 37).



<그림 38> 복두+단령차림  
 한라산 영산대제 봉행,  
 (2006.09.28), 2009.09.28,  
<http://media.daum.net/society>

#### ④ 고깔+단령

고깔은 승려가 쓰던 건(巾)의 하나로 천이나 종이를 접어 만든 관모이다. 곱갈·거냥갈 등으로 불리어 사헌부(司憲府)와 의금부(義禁府)의 나장(羅將)이나, 관아의 급창(及唱) 등 하급관원들도 썼으나 지금은 무당이나 승려가 사용한다. 고깔과 단령을 착용한 모습을 제주 무속 행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림 38>은 탐라국 입춘굿 놀이의 모습으로 김윤수 심방이 고깔과 민무늬의 홍색 단령을 입고 흰색의 목수건을 둘러메고 굿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39> 고깔+단령차림  
 (와치와 바치, p.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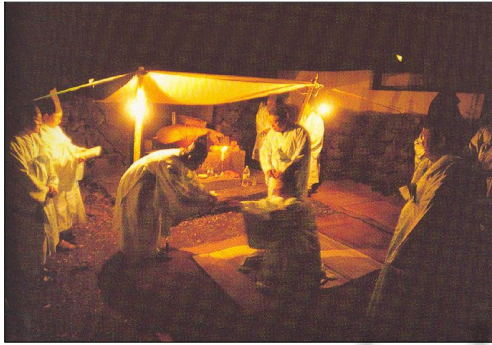
#### (4) 도포차림

도포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시대 중기부터 사용된 포로서 사대부들이 가장 흔히 사용하던 의복으로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청색, 평상시와 상을 당했을 때는 백색을 입었고 주로 연거복, 출입 상복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유생의 제복으로 유교에서 중시하는 사례복(四禮복服)으로도 입혀졌다(안명숙, 김용서, 2003). 여기서의 도포차림에는 유건과 도포, 흑립과 도포 두 가지의 형태를 살펴 보고자 한다.

##### ① 유건+도포

지역에 따라 유교식 마을제를 지낼 때 제관 및 집사들은 유건과 도포를 착용한다. 유교식 마을제는 1년 동안 주민들이 마을 전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식으로 포제, 이사제, 동사제 등으로 불리어지며 마을의 남성 유지들이 주관한다. 이 마을제에서 유건과 도포는 벼슬이나 직급이 중간 정도 되는 집사(執事)들의 차림으로 유건은 조선시대 유생이 쓰던 실내용 두건의 하나이다.

<사진 39>는 어느 한 마을의 남성들이 제관과 집사가 되어 1년 동안 주민은 물론 마을 전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유교식 제법으로 마을제를 치르고 있는 모습이며 이들은 유건과 옅은 옥색의 도포를 입었다. <그림 40>은 시도무형문화제 제6호인 남읍리 마을제의 한 장면으로 옥색 도포와 유건을 착용하고 제를 지내고 있으며 <그림 41>은 1960년대 칠머리 영등굿을 할 때의 모습이다. 칠머리당 영등굿은 유교식 마을제와 당굿의 이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건과 도포차림을 한 집사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42>는 삼성혈에 전시되어 있는 모형으로 건시대제를 재현한 것이다. 건시대제는 고, 부, 양 삼신을 기리는 제의식으로서 고, 부, 양의 자손들은 제관으로서 제복차림을 하지만 나머지 집사들은 유건과 옥색 도포를 착용하고 다른 행사와는 다르게 청색 세조대를 하고 있다.



<그림 40> 유건+도포차림 I  
(사진으로 보는 제주 역사 2, p. 171)



<그림 41> 유건+도포차림 II  
납읍리 마을제의 한 장면, 2009.09.09  
<http://jeju.grandculture.net>



<그림 42> 유건+도포차림 III  
(복을 비는 사람들, p. 122)



<그림 43> 유건+도포차림 IV  
(제주 삼성혈 소장)

## ② 흑립+도포

앞의 유건과 도포차림이 유교식 마을제를 주관하던 집사들의 차림이었다면 무교식 마을제를 주관하는 일반 남자 심방의 차림은 다음과 같다. 일반 남자 심방은 <그림 43>과 같이 흑립에 도포 그리고 허리에 세조대를 하였는데 이 심방의 모습은 1910년 경 제주시 관덕정 앞에서 열린 탐라국 입춘굿 때의 모습으로 직령의 깃에 소매가 넓은 도포를 입고 허리에 세조대를 하였으며 차양이 좁은 흑립을 썼다. <그림 44>는 1960년대 한 마을에 당굿이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심방이 흑립과 도포차림을 하고 본풀이를 구송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림 44> 흑립+도포차림 I  
(제주100년, p. 11)



<그림 45> 흑립+도포차림 II  
(복을 비는 사람들, p. 122)

## (5) 쾌자 차림

쾌자는 철릭 위에 입던 소매 없는 포의 일종으로 쏠이 없고 뒷슬기가 허리 아래까지 트여 있어 고려 때의 쾌자라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왕과 신하가 상복 위에 쾌자를 입었었는데 나중에는 하급근속 및 사령의 제복으로도 착용되어 전복이라 불렀으며 구군복으로 착용되었다. 전통적인 구군복 차림은 쾌자를 입고 광대와 전대를 띠고 병부를 차며 화를 신는 것이다. 심방이 착용하는 쾌자차림은 정장에서 단령을 벗고, 쾌자를 곁옷으로 착용한 경우이며 이때는 흑립이나 고깔을 쓰게 되며 죽은 영혼이 저승에 가는 길을 닦는 질치기, 석살림, 보새감상 때 주로 쾌자차림을 한다. 제주지역 무속 행사에서는 다양한 쾌자 차림을 찾아 볼 수 있다.

### ① 흑립+두루마기+쾌자(섭수차림)

쾌자는 홑옷으로 보통 진립과 함께 쓰여 지나 여기서는 흑립과 함께 착용되었으며 동다리 대신에 두루마기를 입고 그 위에 쾌자를 입는다.

<그림 45>는 우도에서 펼쳐진 영등 송별굿을 연행하는 안사인 심방의 모습이 다. 영등 송별굿은 음력 2월 14일 바람의 신 영등 할망을 다시 바다로 보내는 의식을 말한다. 이때 안사인 심방은 제주지역 특유의 무복차림으로 흔히 ‘섭수차림’ 역 특유의 있다. 이 섭수차림굿은 음에 저고리와 바지 위에 두루마기를 입고 쾌자와 전대를 두르고 목수건과 행전을 착용한 것을 말한다. <그림 46>굿은 영등 할망을 영등굿의 홍상옥 심방의 모습으로 영등 송별굿은 음력 쓰고 쾌자와 전대, 목수건을 하였다.



<그림 46> 흑립+쾌자차림 I  
(사진으로보는 제주역사2, p. 155)



<그림 47> 흑립+쾌자차림 II  
(복을 비는 사람들, p. 193)

1910년대 사진 자료에서는 흑립과 쾌자로 이루어진 접수 차림을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의 일반 심방이 폭이 좁은 전대를 앞으로 묶는 것과 달리 이 심방은 폭이 넓은 전대를 뒤로 착용하고 있다(그림 47). <그림 48>은 제주 민속 자연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쾌자 차림으로 영등굿을 재현하는 장면이 전시되어 있으며 흑립에 두루마기가 아닌 연분홍의 도포를 입고 청 쾌자와 색동으로 된 전대를 뒤로 두르고 있으며 목에는 하얀 목수건을 두르고 있다. 현재 심방의 모습으로는 <그림 49>의 강대원 심방의 쾌자차림을 들 수 있다. 강 심방은 홍색의 두루마기 위에 청색 쾌자를 입고 연두색 전대를 매었으며 흑립을 쓰고 행전을 찼다. 양창보 심방의 쾌자차림은 분홍색 두루마기 위에 자색 쾌자를 입고 분홍색 전대를 들렀는데 각 심방마다 두루마기, 쾌자, 전대의 색을 달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0). <그림 51>은 김윤수 심방의 쾌자 차림으로 제주시 관덕정에서 2009년 2월 6일에 열린 입춘굿 중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신들을 5리 밖에까지 가서 모셔오기 전에 굿판의 부정을 말끔히 씻는 '새드림'과 하늘에서 내려온 1만 8천신들 모셔오는 청신의례 중 하나인 '오리정 신청례'를 진행 할 때 착용하는 무복이다. 김윤수 심방은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초록색 두루마기 위에 가장자리와 앞길, 뒷길, 등 부분에 스팅글로 꽃과 태극문양을 표현한 자색 쾌자를 입었다. 그 위에 노란색 목수건을 두르고 연두색 전대를 매고 있는데 이 전대는 등받이 부분에 분홍색의 다른 천을 덧대어 장식을 하였고(그림 42) 머리에는 흑립을 썼다.

<그림 53>은 제주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청색의 사로 제작한 쾌자이며 길이는 110cm이고, 양옆으로 29cm의 긴 트임이 있어 활동하기 편하게 되어 있다. <그림 54>는 쾌자 위에 착용하는 전대로서 허리 중앙 부분은 다른 천으로 덧대어 등받이를 만들고 이 등받이는 띠의 보색이 색을 대비 시켜 화려한 장식적인 효과를 내었다.





<그림 48> 흑립+쾌자차림 III  
(사진으로보는 제주역사 2, p. 150)



<그림 49> 흑립+쾌자차림 IV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그림 50> 흑립+쾌자차림 V  
(인간과 신령을 잇는 무구, p. 478)



<그림 51> 흑립+쾌자차림 VI  
(인간과 신령을 잇는 무구, p. 469)



<그림 52> 흑립+쾌자차림 VII  
(탐라국 입춘굿 놀이 장면)



<그림 53> 흑립 + 쾌자차림 VII 의 옆과 뒷모습  
(탐라국 입춘굿 놀이 장면)



<그림 54> 쾌 자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55> 전 대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 ② 흑립+두루마기+쾌자+여러 겹의 띠

본 연구자는 위와 같이 흑립과 쾌자가 함께 착용된 예 중 온 몸에 여러 겹의 띠를 두르는 형태를 따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55>는 입춘굿 중 '오리정 신청귀' 대목에서 심방이 쌀로 1만 8천신들의 웅장한 행렬 맨 마지막에 따라 오는 잡귀, 잡신, 배고픈 귀신들에게 대접 할 때 입는 쾌자차림으로 저고리와 바지차림 위에 초록색 두루마기와 쾌자를 입은 후 색동으로 된 천을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허리로 내려오게 묶고 왼쪽 팔에 초록색 천을 묶었다. 이 띠들은 신을 양 어깨로 매어 젓 자리로 모신다는 의미이다. <그림 56>은 풍통과 우마증식의 기원을 비는 마블림제에 입혀진 무복으로 분홍색 두루마기 위에 자색 쾌자를 입고 여러 가지 색의 띠들을 몸과 왼쪽 팔에 둘렀으며 가는 흑립을 쓰고 행진을 찼다.



<그림 56>흑립+쾌자+여러겹의 띠 차림 I  
(탐라국 입춘굿 장면)



<그림 57>흑립+쾌자+여러겹의 띠 차림 II, 풍년기원 백중 마불림제, (2004.8.29), 2008.04.26,  
<http://news.naver.com/>

### ③ 고깔+두루마기+쾌자

고깔과 쾌자가 함께 사용된 예로 <그림 57>의 무속행사는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온평리의 본향당에서 이루어진 당굿으로 1960년대의 자료이다. 당굿은 마을의 신당의 굿으로서 앞의 쾌자차림에서 흑립을 대신해 고깔을 썼다. <그림 58>은 문병규 심방이 질침굿에서 질치는 모습으로 여기서 '질침'이란 가는 길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길을 쳐주는 문 심방은 고깔에 쾌자와 전대, 목수건을 하고 굿을 진행 중이다. <그림 59>는 익명의 심방이 썼던 고깔로 제주 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져 있는 것으로 고깔의 앞모습이며 한지 한 장을 접어서 만들었다.



<그림 58>고깔+쾌자차림 I  
(복을 비는 사람들, p. 139)



<그림 59> 고깔+쾌자차림 II  
(복을 비는 사람들, p. 147)



<그림 60> 고 깔  
(제주 민속박물관 소장)

#### ④ 고깔+두루마기+쾌자+군농치메

2008년 3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영등굿 중 김윤수 심방의 무복으로 쾌자 차림에 여자의 치마를 승려의 장삼처럼 어깨에 둘러메고 머리에 고깔을 썼다. 이때 어깨에 두르는 여자들의 치마를 제주도 말로 '군농치메'라고 불리는데 보통 분홍색 사직물로 만든 치마를 두른다(그림 60). <그림 61>은 제주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인견 소재의 군농치메이며 치마말기 중 입어서 왼쪽 어깨에만 끈을 달아 굿을 할 때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였다.



<그림61>고깔+쾌자+군농치메차림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사진1  
(2008.03.01), 2008.04.27  
<http://cafe.naver.com>



<그림 62> 군농치메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 (6) 두루마기 차림

두루마기란 터진 곳이 없이 막혔다는 뜻으로 주의(周衣)라고도 하며 삼국시대 이후 우리고유의 기본 포가 되어 현대까지 저고리, 바지를 입고 외출을 할 때 입는 의복이다. 두루마기는 문무백관들의 통상예복으로, 선비나 사인들은 사복(私服)으로 착용하면서 일반인들까지 널리 입게 되었다(유희경·김문자, 1999). 이 같은 두루마기차림은 제주 무속 행사에서도 아래와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 ① 흑립+두루마기

제주도의 옛 자료에서 흑립과 두루마기를 착용한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림 62>는 1930년대 '제주성내 문씨댁 지노귀굿'의 사진으로 현재 국립 민속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지노귀굿'은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으로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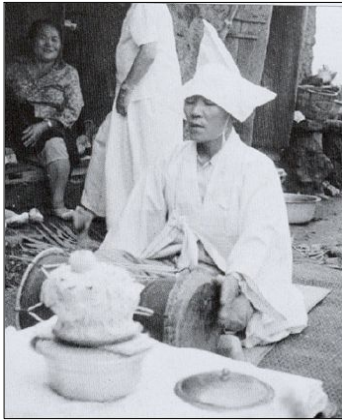
하는 곳을 말하는데(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편찬위원회, 2009) 지노귀곳을 행하는 심방은 차양이 좁은 흑립과 흰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



<그림 63> 흑립+두루마기차림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2, p. 151)

## ② 고깔+두루마기

흑립이 아닌 고깔과 함께 사용된 두루마기차림이다. <그림 63>은 1960년대 문명규 심방이 ‘일월맞이’ 중 역가상 앞에서 장구를 치며 본풀이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일월맞이’는 큰굿을 할 때 일월신을 맞아들어 소지를 올리는 제차를 말한다. 문심방의 차림은 고깔에 흰색으로 보이는 두루마기를 착용하였다. <그림 64>는 제주 입춘굿 중 큰 심방인 김윤수 심방의 두루마기 차림으로 시왕에게 역가 돌려매고 나까시리 놀릴 때, 남자 소미가 신의 길을 청소하는 새드림이나 앞에 모신 신의 굿이 끝날 무렵 떠날 준비를 예고하는 상당숙임 때, 큰 심방이 시왕에게 환자의 액을 막아주고 집안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축원하는 액막이를 할 때 등 갖추는 차림으로 두루마기에 고깔을 쓴다. <그림 65> 또한 큰굿에서 착용되어진 두루마기 차림으로 옅은 분홍색의 두루마기와 고깔을 썼다. <그림 66>은 제주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져 있는 향라 옥색 두루마기로서 홀으로 되어 있는데 옆과 뒤에 트임을 주어 활동성을 확보하였고, <그림 67> 역시 제주 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져 있는 두루마기로서 분홍색의 주아사로 만든 겹 두루마기이다.



<그림64>고깔+두루마기차림 I    <그림 65>고깔+두루마기차림 II    <그림66>고깔+두루마기차림III  
 (복을 비는 사람들, p. 177)    (인간과 신령을 잇는 무구, p. 402)    (제주도큰굿자료, p. 6)



<그림 67> 두루마기 I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68> 두루마기 II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 (7) 저고리·바지차림

저고리·바지 차림은 서민복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데 저고리와 바지 외에 남녀가 함께 착용하던 배자가 있다. 안명숙(2007)에 의하면 남자의 배자는 여자에 비해 길이가 길었으나 앞은 짧고 뒤가 길었으며 어깨만 연결되고 옆은 트여 있었다. 개화기 이후 조끼가 들어오면서 남자의 배자는 사라졌으므로 현재 제주의 무속 행사에서도 배자의 모습은 볼 수 없고 조끼를 입은 저고리 바지 차림만이 확인 될 뿐이다. 이 저고리·바지차림은 심방 또는 심방의 문하생인 소미들과 짚이들이 착용하는 복장으로 추물공연이나 본풀이, 또는 자그마한 단독제인 비넨 때에 주로 입는다.

① (고깔)+저고리+바지+조끼

탐라국 입춘굿 중 큰 시루떡을 공중으로 던졌다 잡았다 하며 춤을 추고 놀리며 여러 신들에게 이 떡을 올리고 하위 군졸들도 대접하는 제차인 ‘지장 본풀이’에서의 소미들의 차림으로 분홍색 저고리와 바지 위에 남색 조끼를 입고 굿을 행하고 있다(그림 68). <그림 69>는 칠머리당 영등굿을 할 때 입는 무복으로 수구에 청색으로 장식한 흰색 저고리와 흰색 바지를 입고 청색의 조끼를 입었으며 머리에는 고깔을 쓴 모습이다.



<그림 69>조끼+저고리+바지차림  
(탐라국 입춘굿 장면)



<그림 70>고깔+저고리+바지+조끼 차림 (칠머리당 영등굿 장면)

(8) 특수복차림

의례가 극적인 것일 때 그 배역에 알맞은 복장을 차리는 것을 특수복이라고 말하며 성주풀이 때에 강태공 서목시역의 심방이 노동복차림에 도끼를 메고 톱을 든 목수의 모습으로 차리는 것이나, 삼공맞이 때에 장님거지로 현옷을 입어 분장하는 것, 영감놀이 때 도깨비차림을 하는 것 등이 특수복에 포함된다. 특히 제주의 굿은 본풀이마다 설화를 바탕으로 무속신의 이야기를 반주에 맞추어 노래식으로 사연을 이야기 하는데 그 내용에 맞게 심방들과 굿에 참여하는 소미들도 무복을 달리하며 그 특수복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초립+가면+검은색 두루마기

영등굿 중 영감놀이에 나타난 특수복 형태로 검은색 두루마기를 입고 갈색의 바지에 짚신을 신었다. 얼굴에는 흰색 천으로 수염처럼 만들어 늘어뜨리고 눈과 코, 입을 뚫어 머리에 뒤집어썼으며 머리에는 초립을 썼다(그림 70).



<그림 71> 특수복 차림 I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 p. 16)

### ② 탈+조끼+저고리+바지/치마

<그림 71>은 1910년대 개화기 때 시전 관덕정 앞에서 벌어진 탐라국 입춘굿 놀이의 한 장면으로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조끼를 입었으며 행전을 차고 얼굴에는 탈을 쓰고 춤을 추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은 저고리에 치마를 입었고 탈을 썼으나 바지에 행전을 찬 것으로 보아 남자가 여장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2> 특수복 차림 II  
(제주 100년, p. 10)



### ③ 저고리+마지+죽은이의 옷

<그림 72>는 1981년 북제주군 고산리에서 펼쳐진 무혼굿을 김수남 작가가 찍은 것으로 심방이 저고리와 바지차림으로 생전에 죽은이의 옷을 등에 메고 바다를 향해 죽은이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있다. 이 죽은이의 옷은 시체를 대신한다고 한다.



<그림 73> 특수복차림 III  
곳에 미친 사진작가 김수남  
(2006.01.10) 2009.11.10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5938&logId=837994>

## 2. 여자무복

제주지역 여자 무복의 형태는 단령차림, 도포차림, 쾌자차림, 두루마기 차림, 저고리·치마차림, 특수복차림의 6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다른 지방에서 여자 무복으로 착용하는 원삼, 몽두리 등의 예복 형태는 제주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으며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도포나 두루마기를 착용한 모습만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유교식 마을제에는 참여하지 못했으므로 무교식 마을제 중 큰굿, 칠머리당 영등굿, 잠수굿, 도제 중 탐라국 입춘굿, 일반굿 등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 (1) 단령차림

단령은 남자들의 백관복으로 여자들이 입을 수 없었던 의복이었다. 하지만 제주에서 남자들은 유교식 마을제를 지낼 때나 무교식 마을제를 지낼 때 남자들의

가장 큰 정장차림인 관디차림, 즉 단령을 입었다면, 여자 심방에게서는 큰곳을 관장하는 서순실 심방에게서 그와 비슷한 단령 차림을 찾아 볼 수 있다(그림 73). 서심방은 맞이곳이나 큰곳에서 당클을 댈 때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쾌자와 전대를 두른 후 다시 홍색 사로 된 도포(관디)를 입고 머리에는 홍색 띠(이명걸이)를 두른다. <그림 74>는 단령의 깃 부분을 확대한 것으로 둥근 깃 입을 확인할 수 있다.

이명걸이는 여자의 무복에서 머리에 두르는 띠로서 육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화관이나 흑립 대신에 제주도 여자 심방들은 ‘이명걸이’를 항상 두른다. 이명걸이는 ‘이마’의 제주도 사투리인 ‘이명’에서 온 말인 듯하다.



<그림 74> 이명걸이+단령차림  
(인간과 신령을 잇는 무구, p. 421)



<그림 75> 단령의 깃부분  
(인간과 신령을 잇는 무구, p. 421)

## (2) 도포차림

여자 무복의 도포차림은 저고리와 치마, 쾌자를 입고 그 위에 도포를 입어 남자 무복의 도포차림과 동일한 모습을 이룬다. 예부터 제주 무속 사회에서는 여계세습(女系世襲)의 신앙형태로서 남자 심방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 또한 제주 무속사회의 특유의 여성신격에 대한 호칭인 ‘할망’과 마찬가지로 여자 심방의 지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유교식 마을제에는 참여할 수 없었던 여자 심방들은 남자 관리들의 관복인 단령은 착용하지 못했지만 도포를 대신 입을 수를 맞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단령과 도포를 모두 관디라고 부르며 언어적으로 혼용이 되어지고 있다. 머리에는 이명걸이를 하고 고깔을 쓰는 경우는 있지만 현재 흑립을 쓰는 경우는 드물다.

### ① 흑립+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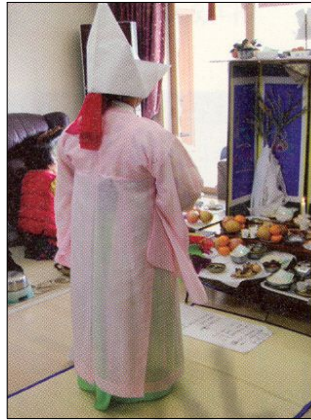
본 연구자는 1960년대 질침굿 중 '번구름질'에서 여자 심방이 흑립을 쓰고 도포를 입은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림 75>는 진부옥 심방이 질침굿을 진행하는 모습으로 머리에는 흑립을 쓰고 사소재로 된 얇은 도포를 입었다. 오래된 자료라 도포의 정확한 색을 알 수 없지만 주로 홍색 도포를 즐겨 입기 때문에 이도 마찬가지로 홍색이라 추측된다.



<그림 76> 흑립+도포차림  
(복을 비는 사람들, p. 151)

### ② 고깔+이명걸이+도포

<그림 76>은 강금춘 심방의 차림으로 홍색이 아닌 옅은 분홍색 홀으로 된 도포를 입었으며 이명걸이를 두르고 고깔을 썼다. <그림 77>은 제주 관덕정에서 열린 탐라국 입춘굿에서 입은 여자 무복으로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위에 안이 비치는 꽃무늬로 앞자락에 장식이 된 사소재의 분홍색 도포를 입었으며 강금춘 심방과 마찬가지로 이명걸이를 두르고 그 위에 고깔을 썼다.



<그림77>고깔+이명걸이+도  
포차림 I  
(인간과신령을잇는 무구. p.480)



<그림 78>고깔+이명걸이+도  
포 차림 II  
(탐라국 입춘굿 놀이 장면)

### (3) 쾌자 차림

여자 심방의 쾌자 차림은 남자의 쾌자 차림과 그 형태는 같으나 후립을 사용하지 않고 남자들이 입었던 두루마기를 생략하고 저고리와 치마 위에 바로 입는 것으로 그 구성면에서 간소화 되었다. 이런 여자 무복의 쾌자차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이명걸이+쾌자

2008년 10월 서귀포 천지연 광장 일대에서 펼쳐진 탐라문화제 중 제주 무형문화제 제 13호인 큰굿을 집행하는 서순실 심방의 무복을 살펴보면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청색 쾌자를 입었으며 등에 수가 놓아진 붉은색 등반이가 있는 연두색 전대를 두르고 이마에는 홍색 이명걸이를 매었다. 이는 위의 단령(판디)차림 중 홍색 단령만을 벗은 모습이다(그림 78). <그림 79>는 제주도의 탐라국 입춘굿에서 12번 석살림 굿을 하는 김윤수 심방의 전수 조교의 쾌자 차림으로 분홍색 저고리와 노란색 치마 위에 스팅글로 화려하게 장식을 한 자색 쾌자에 분홍색 전대를 하고 이명걸이를 한 쾌자차림이며, <그림 80>은 제주 돌문화 공원 일대에서 펼쳐진 2009년 설문대 할망제에서 여자 심방이 이명걸이에 저고리, 치마, 쾌자, 전대를 착용한 모습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각 심방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쾌자의 장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1>은 제주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쾌자의 모습으로 깃의 색을 길과 다른 분홍색을 사용하여 대비시켰으며, 앞과 뒷길은 청색, 안감은 홍색으로 되어 있고 앞길이가 113cm나 되는 긴

네 자락 의복이다. 그리고 이 쾌자는 남자들이 착용했던 쾌자의 것보다 비교적 둥근 형태이며 앞길과 뒷길에 무가 없이 완전히 떨어져 있으며 청색의 천을 앞뒤로 연결해서 고정 시킨 것이 특징이다(그림 82).



<그림79>이명걸이+쾌자차림 I  
(제주 큰굿 장면)



<그림80>이명걸이+쾌자차림 II  
(탐라국 입춘굿 장면)



<그림81>이명걸이+쾌자차림 III  
(설문대 할망제 장면)



<그림 82> 쾌 자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83> 쾌자의 깃과 옆부분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 ② 흑립+ 이명걸이+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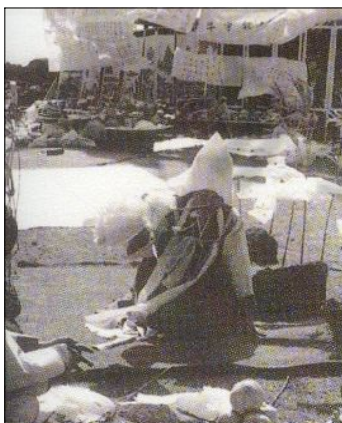
1930년대 서귀포에서 행해진 ‘영계 울림’이라는 무속행사에서 여무가 흑립과 쾌자를 함께 착용한 모습 또한 볼 수 있다. ‘영계 울림’은 심방이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이야기하여 죽은 영혼의 서러움을 울면서 말하는 의식을 말한다(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편찬 위원회, 2009). 이 여자 심방은 이명걸이를 하고 흑립을 썼으며 저고리와 치마 위에 옆무가 달려 있는 쾌자를 입었다(그림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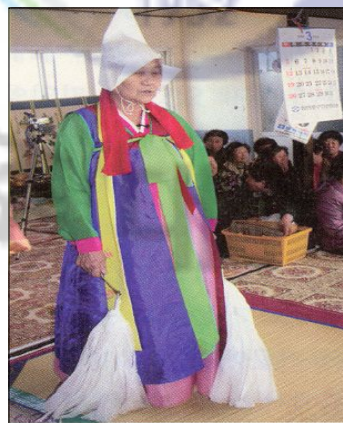
<그림 84>흑립+이명걸이+쾌자차림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2, p. 149)

### ③ 고깔+이명걸이+쾌자

고깔과 쾌자를 함께 착용한 예도 있다. <그림 84>는 1960년대 우도 서광리에 서 어부나 해녀들의 해상 안전과 생산의 풍요를 비는 칠머리당 영등굿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에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림 85>의 양정순 심방 무복은 초록색 저고리와 분홍색 치마 위에 파란색 쾌자를 입고 연두색 전대와 노란색 목수건을 두르고 홍색 이명걸이를 한 후 고깔을 썼다. 강금춘 심방의 쾌자차림도 저고리와 치마 위에 무가 달려 있는 파란색 쾌자를 입고 끝부분을 자주색으로 장식한 연두색 전대를 둘렀으며 이명걸이를 하고 고깔을 쓰는 것으로 강심방은 무가 달려 있지 않은 쾌자를 착용하였다(그림 86).



<그림 85>고깔+쾌자차림 I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2, p. 157)



<그림86>고깔+쾌자차림 II  
(인간과 신령을 잇는 무구,p.441)



<그림87>고깔+쾌자차림 III  
(인간과 신령을 잇는 무구,p.480)

#### ④ 고깔+이명걸이+쾌자+군농치메

2008년 2월 제주 목관아 관덕정에서 열린 탐라국 입춘굿 중 신을 즐겁게 놀리고 기원하는 의식인 석살림 굿 중 ‘군웅 본풀이’를 노래하고 집안의 조상신을 찬양하는 조상신 본풀이에서 ‘군웅덕담’을 노래하여 신을 놀릴 때 노란색 치마와 분홍색 저고리를 입고 자색 쾌자위에 분홍색 군농치메를 걸치고 이명걸이를 한 다음 고깔을 쓴다(그림 87). <그림 88> 또한 탐라국 입춘굿의 한 장면으로 앞의 그림과는 다르게 흰색 사로 되어 있는 군농치메를 어깨에 들렀다.



<그림88>고깔+이명걸이+쾌자+군농치메차림 I  
(탐라국 입춘굿 장면)



<그림89>고깔+이명걸이+쾌자+군농치메차림II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제주 10대 문화 상징물 - 여섯번째 : 제주굿 (2009.06.20), 2009.11.16  
<http://www.jejusori.net/>

#### ⑤ 관+쾌자

남자 심방의 쾌자차림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관의 모습을 여자 심방의 쾌자차림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89>는 관 쓴 할망 심방의 모습으로 단으로 추측되는 단층 정자관 형식의 관을 쓰고 저고리와 치마 위에 쾌자를 입고 전대를 들렀다. 이 밖에 제주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익명의 심방의 관들 또한 무속행사에 사용되어졌다. <그림 90>의 관은 3층 정자관의 형태이지만 내관과 외관의 크기는 일정치 않으며 외관을 각각 따로 재단을 하여 내관과 함께 아래 이마 부분에서 고정을 시켰고 가장자리를 마무리 하지 않고 자른 단면 그대로 두었다. <그림 91>은 단층 정자관으로서 앞, 옆, 뒤 각각 3줄씩 곁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90> 관+쾌자차림  
(복을 비는 사람들, p.200)



<그림 91> 3층 정자관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92> 단층 정자관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 ⑥ 이명걸이+쾌자+여러겹의 띠

남자 무복에서와 마찬가지로 쾌자차림에 여러 겹의 띠를 몸에 두른 차림을 1960년대의 자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92>는 당굿 날 제의 때 본향뚝 장면의 심방 차림으로 이명걸이를 하고 쾌자에 전대를 두르고 팔과 어깨, 허리에 많은 띠를 묶은 채 굿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93> 이명걸이+쾌자+여러겹의 띠차림  
(복을 비는 사람들, p. 134)



#### (4) 두루마기차림

두루마기는 갑오경장 후 윤페생활에서 벗어나 바깥출입이 가능해지고 외부활동이 허용되자 여성들도 착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쓰개치마와 장옷이 없어지면서 전적으로 이를 입게 되었다고 한다(유희경·김문자, 1999). 하지만 여성의 두루마기는 방한용으로 주로 입혀지게 되었고 제주무속 행사에서는 옛 자료에서 두루마기를 착용한 여자 심방들을 찾아 볼 수 있으나 현대의 심방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다.

##### ① 이명걸이+두루마기

100년 전 관덕정 앞에서 탐라국 입춘굿을 끝내고 기념 촬영한 것으로 저고리와 치마 위에 두루마기를 입고 가슴에 대를 하고 머리에는 이명걸이를 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현재 무녀들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한삼을 손에 들렀다(그림 93).



<그림 94>

이명걸이+두루마기차림  
(제주100년, p. 13)

#### (5) 저고리·치마차림

여자 무복에서 저고리와 치마차림은 여자의 평상복 차림으로 단령, 도포, 쾌자차림 밑에 입는 옷이기도 하지만 저고리와 치마만 입고도 무속 행사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 ① 저고리+치마

음력 1월 12일에 열린 탐라국 입춘굿에서 본향 당신들을 다 모시고 좌정시킨 뒤 제주 시장과 사람들을 젓상 앞에 앉히고 절을 시킨 후 ‘음복지주잔’이라는 명과 복을 이어주는 제물을 음복한 후 ‘신에게 한해의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십사’ 하는 소원을 기원하는 ‘본향뚝’에서 소미의 무복으로 일반적으로 입는 한복의 형태가 똑같은 저고리, 치마 차림이다(그림 94). 이런 저고리와 치마차림은 심방이나 소미가 아닌 곳에 참가한 소리꾼 또한 착용하게 되는데 <그림 95>는 2008년 제주 탐라문화제 중 큰굿을 재현할 때 한 소리꾼이 짧은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가슴에 화려한 수로 장식 한 가슴가리개를 하고 머리에는 꽃을 달고 신명나게 노래와 춤을 추고 있다. <그림 96-97>은 제주도 내왓당 무신도 10신 중 여신들의 모습이다. <그림 96>은 ‘상군위’의 모습으로 쪽진 머리를 한 것처럼 보이고 화려한 머리 장식들과 함께 큰 오리 비녀를 꽂았다. 그리고 녹색 저고리에 홍색 치마를 입었고 허리에 푸른색 띠를 둘렀으며 흰색 속바지와 흰색 신을 신고 앉아 있다. <그림 97>은 무신도 중 ‘중전위’로 상군위와 마찬가지로 쪽진 머리에 장식을 하였고 깃과 곁마기, 소매의 색은 청색이고 바탕은 홍색인 삼희장저고리와 홍색 무늬가 있는 녹색 치마를 입었으며 안에는 청색 속바지를 입고 허리에 흰색 띠를 둘렀으며 흰색 신을 신고 있다.



<그림95>저고리+치마차림I  
(탐라국 입춘굿 놀이 장면)



<그림96>저고리+치마차림II  
(제주 큰굿 장면)



<그림97> 저고리+치마차림Ⅲ  
(제주대학교 박물관 소장)



<그림98>저고리+치마차림Ⅳ  
(제주대학교 박물관 소장)

## ② 고깔+저고리+치마

<그림 98>은 1982년 3월 6일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여씨 할망당에서 열린 칠머리당 영등굿의 모습으로 당과 단골 관계를 맺고 있는 당매인 심방 김선옥의 모습이다. 이 심방은 고깔을 쓰고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의례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소색의 저고리와 치마에 흰색의 고깔이라는 의례용 쓰개만 갖춘 것으로 매우 약식화 된 무속복식으로 볼 수 있다.



<그림 99> 고깔+저고리+치마차림  
(한국의 무속3 제주도 영등굿, p. 58)

### ③ 머리수건+저고리+치마

100년 전 개화기 때의 무녀의 저고리와 치마 차림으로 소색으로 추정되는 발목 위까지 오는 치마를 입고 속바지와 버선을 신고 있으며 소매를 걷어 올렸으며 머리에는 수건을 쓴 모습이다. 이 모습은 무복의 형태라고 하기 보다는 노동복에 가까운 차림인데 개화기 시절 전통 의복의 서양화가 무복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99). <그림 100>은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져 있는 자료로, 1930년대 '제주 성내 문씨댁 지노귀굿'이다. 이는 죽은 사람을 위해 굿을 하는 것으로 옆에 여성이 배로 된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굿에 참여 하고 있다.



<그림 100> 머리수건+저고리+치마차림 I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 p. 147)



<그림101>머리수건+저고리+치마차림II  
(사진으로 보는 제주 역사 2, p. 152)

### (6) 특수복 차림

#### ① 초립+가면+저고리+바지+행진

남자 무복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자 무복 또한 특수복의 차림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101>은 2008년 10월에 서귀포시 천지연 광장에서 열린 큰굿에서 서순실 심방과 함께하는 소미의 모습으로 남자와 마찬가지로 갈색 빛이 도는 저고리와 바지를 입는데 이는 제주도의 전통 염색기법인 감물염색이 된 갈옷으로 보인다. 갈옷은 제주의 전통적인 노동복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을 하였던 의복이다. 저고리의 소매는 아주 넓고 바지에는 행진을 돌렸으며 얼굴에는 천으로 만든 탈을 뒤집어쓰고 초립을 쓴 차림으로 노래와 춤을 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굿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 과장되게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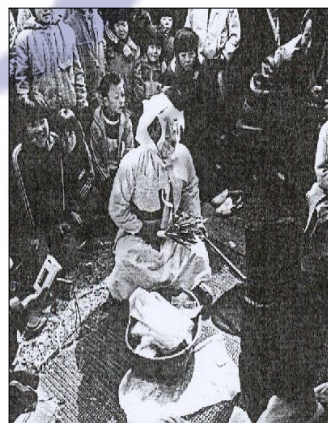
<그림 102> 초립+가면+저고리+바지차림 (제주 큰굿 장면)

## ② 가면+저고리+치마

<그림 102>는 양정순 심방의 특수복 차림으로 신양리 잠수굿 중 용울림굿을 할 때의 차림이다. ‘용울림굿’은 요왕맞이 질침이 끝나면 이어지는 순서로 심방은 천으로 용의 가면을 만들어 쓰고 몸체를 길게 만든 모습을 한 후 바다에 나가 용왕을 불러오는 의식으로 가면은 매해 잠수굿을 할 때마다 굿판에서 새로 만들고 나중에는 요왕문 등과 같이 태운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그림 103>은 1982년 3월 6일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여씨 할망당에서 열린 영등굿의 한 장면으로 아이에게 질병을 갖다 주는 사악한 여신인 구삼신 할망을 재현한 것으로 얼굴에 한지로 종이가면을 만들어 쓰고 저고리와 치마 그리고 앞치마를 입고 아이를 해치겠노라 위협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103>가면+저고리+치마차림  
(인간과 신령을 잇는무구, p. 440)



<그림104>가면+저고리+치마차림  
(한국의굿3 제주도영등굿, p. 67)

## IV. 제주지역 무속복식의 특성

제주지역 무속행사에서 남녀가 착용하는 복식을 살펴 본 결과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제주 무속 행사별 특성

제주의 무속은 도제, 마을제, 일반굿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마을제는 다시 유교식 마을제와 무교식 마을제로 구분할 수 있다. 무속 행사에 따라 착용한 차림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제주무속 행사에 착용된 복식의 종류

행사	복식							
	제복	조복	단령	도포	쾌자	두루마기	저고리·바지/치마	특수복
도제	○	○	○	○	○	○	○	○
마을제	유교식	○	○	○				
	무교식			○	○	○	○	○
일반굿			○	○	○	○	○	○

첫째, 제주도제는 제주도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제주관청이 주관하여 이루어지는 행사이다. 이 도제에는 유교식 마을제의 원형이라고 여겨지는 영산대제와 건시대제, 그리고 유교식 마을제와 무교식 마을제의 의례를 모두 가지고 있는 탐라국 입춘굿 등이 해당되며 제복과 조복, 단령, 도포, 쾌자, 두루마기, 저고리와 바지/치마, 특수복형태의 차림을 착용했다. 영산대제에서는 다른 행사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조선 후기의 조복차림을 착용하는데 이는 일반 제사의 개념이 아닌 일종의 불교적 경축 행사이기 때문에 제복 차림이 아닌 조복차림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를 주관하는 제주도지사나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들은 복두+단령차림을 하는데 이 차림 또한 다른 무속행사에서는 볼 수 없는 차림이다. 건시대제는 제주도지사와 높은 관리들이 고, 양, 부 삼신에게 지내는 제주의 안

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무속행사로써 제복차림을 하고 유교식 마을제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관리들은 단령차림 혹은 유건+도포차림을 한다. 탐라국 입춘굿 놀이 중 입춘굿 전야제 때 관리들은 제복차림과 유건+도포차림을 하고, 본 입춘굿 행사에서의 심방은 무교식 마을제 때의 옷차림인 단령, 쾌자, 저고리와 바지, 특수복 차림을 한 것으로 보아 입춘굿에서는 조복을 제외한 유교식 마을제와 무교식 마을제의 모든 차림을 찾아 볼 수 있다.

둘째, 마을제는 마을을 수호하는 당신에 대해 마을 사람들이 합동으로 당에서 하는 곳으로 유교식 마을제와 무교식 마을제로 구분된다. 유교식 마을제는 포제, 별제, 기우제, 해신제 등이 있으며 행사의 주체는 그 지방의 남성이 되며 여성들은 유교식 마을제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지역의 유지가 제관이 되고 다른 남자들은 집사가 되어 제를 모시는데 이 때 착용하는 복식은 격식을 제대로 갖춘 제복, 도포 또는 사모관대와 흥배를 단 단령차림이었다. 이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이므로 예부터 지역에 높은 관리들이 제사를 지내는 풍습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유교식 마을제는 행사의 종류에 따라 제관과 집사의 수가 달라지는데 고, 양, 부 삼신을 모시는 삼성 춘, 추대제는 초현관, 아현관, 중현관으로 세명의 제관이 제복차림을 하고 그 밖의 마을제에서는 12제관이라 하여 12명이 제복차림을 한다. 또한 제관의 품계에 따라 양관의 수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 외 마을제에 참여하는 다른 남자들은 사모관대를 한 단령 혹은 유건+도포차림을 하고 제를 집행하기도 하며 모든 사람들이 유건+도포차림을 하고 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다.

셋째, 무교식 마을제는 심방이 주관을 하고 마을 사람들이 참관하며 마을의 신당에서 정해진 날 대개 하루 동안 제의를 베푸는데 영등굿, 신과세제, 마불림제 등이 있다. 이때 심방들은 제복과 조복을 제외한 흥배가 없는 단령과 도포, 쾌자, 두루마기, 저고리와 바지 혹은 치마, 특수복을 두루 착용하며 심방이나 소미, 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에 따라 그 차림이 달라진다. 다시 말해, 단령과 도포, 쾌자, 두루마기는 큰 심방과 작은 심방이 입었고, 저고리와 특수복은 소미들이나 췌이, 혹은 제에 참여하는 일반 사람들이 착용하여 극의 절정을 이룬다.

마지막으로 일반굿은 일반 가정에서 심방이나 삼승 할망이 신령들을 청해 축원하여 가족의 건강과 무사안녕을 기원하였던 것으로 대표적인 행사는 무혼굿나 지노귀굿 등이다. 일반굿의 차림으로는 무교식 마을제와 마찬가지로 남녀 심방들과 소미, 굿에 참여하는 이들이 단령, 도포, 쾌자, 두루마기, 저고리와 바지/치마, 특수복 차림을 한다. 또한 제주도는 해녀들의 활동이 많은 지역임으로 뜻하지 않은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해녀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치르는 무혼굿은 굿의 규모와 굿의 절차와 의복의 형태가 달라진다.

## 2. 성별에 따른 복식 종류별 특성

제주지역의 무속행사는 남자가 주체가 되는 도제 중 영산대제와 건시대제, 유교식 마을제와 남녀 심방이 각각의 주체가 되는 도제 중 입춘굿, 무교식 마을제, 일반굿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복식의 종류별 특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제주지역의 무속행사에 남자가 착용하는 복식은 제복차림, 조복차림, 단령차림, 도포차림, 쾌자차림, 두루마기차림, 저고리·바지차림, 특수복차림의 8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여자는 단령차림, 도포차림, 쾌자차림, 두루마기차림, 저고리·치마차림, 특수복차림의 6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제주 무속 행사에 착용한 남·녀 복식의 종류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제주무속 행사에 착용한 남·녀 복식의 종류

	제복차림	조복차림	단령차림	도포차림	쾌자차림	두루마기차림	저고리·바지/치마차림	특수복차림
남자								
	제관, 제복, 방심곡령	제관, 조복, 방심곡령	흑립 또는 고깔, 단령, 세조대	유건, 도포, 세조대	흑립 또는 고깔, 쾌자, 두루마기, 전대	고깔, 두루마기, 저고리, 바지	조끼, 저고리, 바지	극에 맞는 옷차림
여자	-	-						
	-	-	이명걸이, 단령	고깔, 이명걸이, 도포, 세조대	고깔 또는 관, 쾌자, 전대	이명걸이, 두루마기, 저고리, 치마	이명걸이 또는 머리수건, 저고리, 치마	극에 맞는 옷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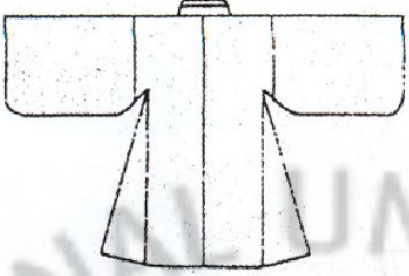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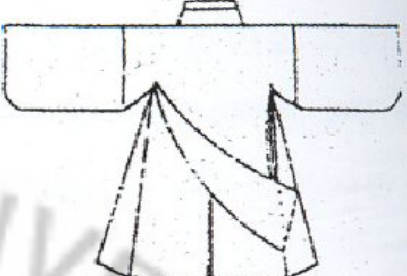


첫째, 남자 제관들만이 입을 수 있었던 제복차림은 유교식 마을제와 도제 중 입춘굿과 영산대제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제관 및 제복을 입고 방심곡령을 한 형태이다. 보통 지역의 유지나 관리들이 제복차림을 하였고 제사에 참여하는 제관의 품계에 따라 양관의 수는 달리하였다. 전통적인 제복은 조선 초기에는 동정이 없이 바로 방심곡령을 착용하였고 후기에는 동정을 달고 방심곡령을 착용하였는데 제주무속에서 착용하는 제복차림은 조선후기의 양식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복은 전체적으로 흑색을 띄고 있는데 이때 흑색은 방위적으로 북쪽을 가리키고, 죽음, 공포, 불행, 죽음, 인간의 지혜 등을 상징하는 색상이며 관의 범복이 흑색인 것은 정직과 명예의 표상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유교식 마을제에서 제관이 입는 제복차림은 제사 등의 의미가 담긴 흑색인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조복은 영산대제에서만 볼 수 있는 차림으로 전통적인 조복과는 다르게 의복의 전면에 금박을 이용해 원형문과 운문으로 장식을 하였고 제관의 품계에 따라 원형의 장식의 크기와 무늬가 달라진다. 조복은 전체적으로 적색을 띄고 있는데 이때 적색은 방위상으로 남쪽을 의미하고 태양과 불, 피 등과 같이 생성, 창조, 정열과 애정, 적극성을 뜻하며 가장 강력한 벽사의 색상으로 질병 치료나 집안, 마을, 나라 전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주도의 안녕을 기원하는 영산대제 때 제복이 아닌 조복을 착용하는 이유는 영산대제는 조상에게 제의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 기원하는 일종의 불교 의식이기 때문이다.

셋째, 단령차림은 도제, 마을제, 일반굿 모든 무속행사에서 착용되는 차림이며 심방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정장 차림이다. 단령차림은 유교식 마을제인지 무교식 마을제인지에 따라 흥배의 유무가 결정되는데 흥배와 사모관대를 모두 착용한 단령은 관리의 복식으로 유교식 마을제에서 착용을 했으며, 흥배가 없는 단령은 호수나 공작털로 장식한 흑립이나 고깔과 함께 무교식 마을제나 도제 중 입춘굿, 일반굿에서 신을 맞아들일 때 착용된다. 여기서 심방이 착용하는 단령은 '관디'라고 부르는데 관디는 '관복'의 제주도 방언이다. 내륙지방에서의 관복이라 함은 문무백관이 평상시 일을 할 때 착용했던 의복으로서 사모관대와 흥배를 모두 착용한 단령차림을 말하겠지만 제주에서는 흥배가 없는 단령은 물론 도포까지도 관복이라 여기며 함께 '관디'라고 지칭하면서 현재까지도 혼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어져 온 단령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뒷모습의 형태를 보여준다. 전통적인 단령의 뒷부분은 무를 뒷길에 붙여 사방이 막혀 있는 형태이지만 변화된 제주의 단령은 뒤가 트여 있고 그 위에 도포처럼 전삼이 한 자락 더 달려 있다. 이런 뒷모습을 <표 5>에 도식화하였다.

<표 5> 전통적인 단령과 제주 단령의 뒷모습

	전통적인 단령	제주 단령
단령의 뒷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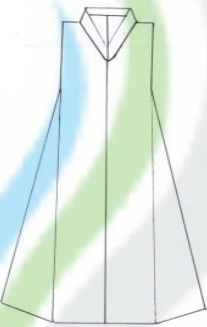

이런 두 형태의 단령은 현재 모두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흑립이나 고깔과 함께 착용된다. 이렇듯, 단령은 본래 남자들의 관복으로서 엄격히 말하자면 여자들에게는 제한된 의복 차림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의 자료를 살펴보면 여자 심방 또한 단령을 입은 것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회구조가 변함에 따라 여자 심방 또한 남자 심방과 같은 위치에서 단령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여자 심방의 단령차림은 남자들과 같이 흑립 혹은 고깔을 사용하지 않고 이마에 이명걸이라고 하는 홍색 띠를 두르는데 이 이명걸이의 ‘이명’ 또한 제주도 방언으로 항상 머리에 착용하는 기본 구성 의복 중의 하나이다. 이때 단령은 대부분 적색을 많이 착용했는데 적색은 재앙과 악귀를 물리치며 성스러운 신을 맞이하는 무속행사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도포차림은 유교식 마을제의 집사와 탐라국 입춘굿, 무교식 마을제 등을 집행하는 심방들이 착용하는 복식이다. 유교식 마을제의 집사가 착용하는 도포는 주로 옥색으로 유건과 함께 착용한다. 남녀 심방이 착용하는 도포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단령과 함께 가장 큰 정장차림이라 불리는데 단령과 마찬가지로 도포 또한 남성의 고유의 의복이다. 다른 지방의 여자 무속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여자의 정장차림은 원삼이나 몽두리이지만 제주도에서는 이와 같은 복식은 찾아 볼 수 없고 예복을 대신하는 관복을 입음으로서 여성과 남성의 신분을 동격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쾌자차림은 남녀 심방의 차림으로 단령과 도포차림 밑에 입는 차림으로 가장 다양한 형태가 선보여지고 있다. 이 쾌자차림을 군복이라고도 하는데 전통적인 군복은 동달이와 쾌자를 입은 후 전대와 병부를 차는 것이지만 제주의 쾌자차림은 간소화 되어 동다리나 머리에 쓰는 전립은 볼 수 없고 두루마기에 쾌자를 입고 전대를 매고 목수건을 두르는데 이를 ‘섬수차림’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쾌자의 차림은 흑립이나 고깔, 관을 달리하거나 여러 겹의 띠를 몸에 둘러 착용하는데 남녀의 구분을 옆무의 유무와 깃의 형태에 의해 알 수 있다.

남자심방의 쾌자에는 대부분 무를 달아 착용하고 깃은 직선형태의 깃모양이나 깃의 깊이가 비교적 깊다. 반면 여자 심방의 쾌자에는 남자의 쾌자보다 깃이 둥글고 옆무가 없고 겨드랑이 부분만 앞뒤를 천으로 연결하여 앞, 뒷자락이 분리된 네 자락의 의복이다. <표 6>은 옆무의 유무에 따른 쾌자의 형태를 도식화로 나타낸 것이다. 여자 심방들이 옆무가 없는 쾌자를 착용하는 이유는 폭이 넓은 치마를 입었을 때 오히려 옆무가 달린 쾌자는 활동성을 저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옆무가 없는 쾌자에는 스팅글을 달기도 하여 옆무가 달린 남자 심방의 쾌자보다 한층 더 화려하게 장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 제주무속 행사에 착용되는 쾌자의 종류

	옆무가 달린 쾌자	옆무가 달리지 않은 쾌자
쾌자 형태		

또한, 무속 행사를 진행하는 중에 쾌자차림에 여러 겹의 띠를 두르는데 이는 신을 청해온 뒤 어깨에 둘러매어 제사상 자리로 옮긴다는 의미이다. 이때 띠의 수는 심방에 따라 각기 다르며 사용하는 색도 제각각 다르다. 그리고 쾌자는 전체적으로 청색을 띄고 있는데 청색은 방위상으로는 동쪽이고 만물이 생성하는 봄의 색이며 창조, 생명, 신생을 상징하고, 해돋이, 밝음, 맑음, 약동하는 힘을 나타내는 색이다. 또한 적색과 함께 양기가 강한 색으로 기운이 쇠퇴해 가는 것을 살려 귀신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색이기하도 하다. 제주 무속복식 중 청색의 쾌자는 전반적인 굿의 모든 제차 때 심방들이 입고 있음으로 하여금 악귀를 물리치고 복을 비는 의미가 있다. 영혼이 저승에 가는 길을 닦는 질치기, 석살림, 보새감상 때, 잡귀, 잡신, 배고픈 귀신들에게 하는 대접할 때 등에서 청색의 쾌자차림을 볼 수 있다.

여섯째, 두루마기 차림은 무교식 마을제나 일반굿을 할 때 큰 심방 또는 작은 심방이 입는다. 이와 같은 두루마기 차림은 현재 남자 심방에게서만 나타나고 흑립과 고깔을 함께 착용한다. 두루마기는 단령, 도포나 쾌자차림을 할 때의 기본

복식으로 곳을 행하는데 제차에 따라 그 자리에서 단령이나 도포, 혹은 쾌자를 벗어 다른 차림을 함께 유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자 심방은 100년 전 입춘굿을 끝낸 여무들에게서 살펴 볼 수 있다. 이들은 두루마기와 흰색 한삼을 함께 사용했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사방이 막힌 두루마기는 넓은 치마를 입는 여자 심방에게는 오히려 기능적으로 효율성이 낮고 개화기 때 의복 간소화로 인해 도포의 형태로 흡수되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두루마기에 가장 많이 나타난 백색은 소색이라 불리어지기도 하며, 방위상으로 서쪽을 가리키며, 가을을 상징한다. 이러한 백색은 결백, 진실, 삶, 순결을 상징하며 우리 민족이 가장 즐겨 입었던 색으로 백색은 물감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원색이라는 의미에서 무색이며, 무색은 곧 자연 그 자체로서 한국적 조형미를 가장 잘 표현한 색상이다. 또한 절제와 지조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세속을 벗고 새로운 삶의 세계를 기원하는 의미로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으로 인도하는 지노귀굿이 그 대표적이다.

일곱째, 저고리·바지/치마차림은 남녀 복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복으로 심방 보다는 주로 소미들의 차림이다. 남자 소미들은 저고리와 바지 위에 항상 조끼를 착용하고 고깔을 쓰기도 한다. 여자 소미들은 저고리와 치마를 주로 입고 조끼는 개인의 개성에 따라 혹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그 유무가 달라진다.

여덟째, 특수복차림은 극의 전개에 따라 소미나 무속 행사에 참가하는 모든 이들이 특수복차림을 할 수 있다. 특수복은 서사무가형태의 제주 무속 의례는 그 의례에 맞추어 심방 또는 소미들이 의복을 달리하여 연극적인 분장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영등놀이 때의 영감복장이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이 흑색이나 갈 천으로 된 저고리와 바지, 행전과 초립을 쓰고 얼굴에는 긴 수염을 표현한 흰색 한지나 천으로 얼굴을 전체적으로 다 감싼다. 영감놀이는 신이 여인의 미모를 탐하여 빙의했기 때문에 질병을 앓는다는 점괘가 나왔을 경우 빙의한 영감신을 내보내어 질병을 치료코자 할 때 또는 어선을 신조하고 그 선신을 모셔 앉힐 때 등 이와 같은 차림을 하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면서 신을 모시는데 이와 같은 연극이 제주도의 무속행사에는 10여 종류가 있다.

## V. 결 론

제주도는 예로부터 지리적으로 다른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독특한 의생활 양식이 형성되었으며 민간신앙 또한 크게 발달했으므로 무복 역시 제주도만의 독창성을 가지고 발달하였을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서 무속행사에 착용하는 복식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제주도의 무속은 18,000신을 섬기고 12본풀이 형태이며 제주 내 심방은 약 600명~700명 정도이고 무속행사는 풍요, 안전, 건강을 기원하거나 슬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행사로 구분하여 약 20종류의 굿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마을마다 당신을 모시고 있어 마을제를 올린다. 현재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제주지역에서는 많은 민간신앙과 무속이 성행했다는 자료가 남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탐라순력도에 기록이 되어있는 건포배은이다. 당시 제주목사였던 이형상이 제주에 널리 자리 잡고 있던 신당들을 불태우고 굿을 하지 못하게 저지하였으며 심방의 본업을 빼앗고 농사에 종사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민들의 무속은 계속 성행했다고 한다. 이렇듯 제주에서는 많은 신들과 함께 수 천 년을 살아 온 것이다.

둘째, 현재 제주에서는 그 개체를 줄였지만 여러 가지 무속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무속 행사는 주관하는 주최에 따라 도제, 유교식 마을제, 무교식 마을제, 일반굿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제는 탐라국 입춘굿과 건시대제, 영산대제가 있으며, 유교식 마을제로는 포제, 별제, 기우제, 해신제, 제석제가 있으며, 무교식 마을제는 칠머리당 영등굿, 잠수굿 등이 있고, 일반굿은 무혼굿과 지노귀굿이 대표적인 행사이다.

셋째, 도제에서는 유교식 마을제와 무교식 마을제의 모든 차림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복차림까지 찾아 볼 수 있다. 유교식 마을제의 경우는 마을제를 주관하는 제관이 그 지역의 남성 유지가 되므로 유교적 격식을 제대로 갖춘 제복, 유건과 도포, 흉배가 달린 단령차림을 하지만 무교식 마을제의 경우는 심방이 주체가 되므로 가장 큰 예복인 경우 흉배가 없는 단령이나 도포, 그 외는 행사의 목적에 따라 쾌자, 두루마기, 저고리와 바지/치마, 특수복을 착용하며 일반 굿은 심방이 주관을 하므로 무교식 마을제와 차림이 같다.

넷째, 남자의 경우 제복차림, 조복차림, 단령차림, 도포차림, 쾌자차림, 두루마기차림, 저고리·바지차림, 특수복차림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복 및 유건과 도포차림은 유교식 마을제의 행사에서 유교식 격식을 갖춘 제관들과 집사의 차림이며 조복차림은 도제 중 영산대제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차림이다. 마을제의 성격에 따라 흉배의 유무가 결정되는 단령은 무교식 마을행사에서 심방에게 가장

정장차림으로 여겨진다. 그리하여 큰곳이나 신들을 맞이하는 맞이곳을 할 때 입으며 관복 즉 관디차림이라고도 한다. 도포차림은 단령과 마찬가지로 관디라고 여겨지며 단령의 요소와 혼합되어 새로운 형태를 생겨났으며 정장차림에 해당한다. 쾌자차림은 섬수차림이라고도 하며 제주지역 특유의 무복차림으로 죽은 영혼이 저승에 가는 길을 닦는 질치기, 석살림 등을 할 때의 착용한다. 두루마기차림은 보통 앉아서 하는 곳이나 작은 곳을 할 때의 입혀지는데 고깔을 머리에 쓰고 두루마기를 입는다. 저고리와 바지차림은 주로 소미들의 복장으로서 저고리와 바지위에 조끼를 입으며 고깔을 쓰기도 한다. 특수복 차림은 굿의 정점을 치솟게 하기 위하여 심방 혹은 소미나 굿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굿의 내용에 따라 소미들이 옷을 차려 입는다.

다섯째, 여자의 경우 단령차림, 도포차림, 쾌자차림, 두루마기차림, 저고리·치마차림, 특수복차림으로 나눌 수 있다. 단령차림은 과거 자료로 미루어 보아 1990년대 이후부터 착용된 것으로 보이며, 흑립은 착용하지 못하였다. 도포차림은 단령 대신의 가장 큰 정장차림으로 여겨졌으며 남무와 마찬가지로 단령, 도포 모두를 관디라고 한다. 쾌자차림은 역시 이명걸이를 하고 저고리와 치마 위에 쾌자를 입고 가슴에 전대와 목수건을 하였고 남자 쾌자차림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관을 쓴 할망의 모습이 나타난다. 두루마기차림은 현재 100년 전 사진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명걸이를 하고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는 한삼을 착용하였다. 하지만 현재에는 의복의 간소화로 인하여 도포로 흡수가 되어 두루마기차림은 볼 수 없다. 저고리와 치마차림은 주로 소미들이 비념을 할 때의 차림으로 100년 전 개화기 때에는 치마길이가 짧아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듯 현재의 저고리·치마차림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용하고 있는 한복과 같은 형태이고 머리에는 이명걸이를 두르지 않는 것이 여자 심방과의 차이점이다. 특수복차림은 남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설화의 내용에 따라 의복이 달라지는데 영등 할망 외에도 큰곳에서는 가면을 쓰고 짚을 엮은 것을 어깨에 두르기도 하고 탈을 쓰고 탈춤을 추기도 한다.

제주도의 무복은 함경도 지역을 비롯한 다른 지역보다 화려하거나 다양하지는 않지만 이상과 같은 특징적인 유형 및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무복은 심방이 죽으면 불에 태우거나 같이 땅에 묻어버리기 때문에 복식사적인 흐름을 알기 어려워 명맥을 유지하기도 힘들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무복 또한 우리나라의 특성을 가진 복식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유형에 따른 상징성, 조형성 등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제주의 무복과 타 지역 무복의 비교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Kskim5 (2006.09.26), 2006 제주 한라산관음사 영산대제, 네이버 블로그, 2008.06.16, <http://blog.naver.com/kskim5?Redirect>
- 강봉수 (2003), 제주무속신화에 나타난 도덕질서 : 일반신본풀이의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제24집, pp. 29-83.
- 강윤숙 (1993), 복식에 나타난 오행색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20호.
- 강정호 (2004.8.29), 풍년기원 백중 마불림제, Newsis, 2008.04.26, <http://news.naver.com>
- 고성배 (2009.06.20),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제주 10대 문화 상징물-여섯번째: 제주굿, 2009.11.20 <http://www.jejusori.net/jejuucc/>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대전: 민속원.
- 권오호 (1996), 우리문화와 음양오행, 서울: 교보문고.
- 김기삼 (1992), 제주 굿의 세계를 펼치는 심방들, 월간제주, 2008.06.15, pp. 41-48.
- 김순덕 (1981), 한국무속복식의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순자 (2006), 와치와 바치-제주삶과 문화를 잇는 사람들, 제주도: 각, pp. 95-119.
- 김영숙 (1999), 한국복식 문화사전, 서울: 미술문화.
- 김영숙 (2004),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 미술문화.
- 김영자 (1992), 한국의 복식미, 서울: 믿음사, pp. 134.
- 김오순 (2001), 탐라순력도 산책, 제주도: 제주문화, pp. 223-226.
- 김은정 (2003), 降神巫服의 袍에 관한 연구-서울굿 무복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Vol.41 No.9. pp. 43-54 .
- 김은정 (2003), 땅자 천도굿에서 상징하는 무복의 특성-진도 셋김굿과 서울 진오기굿을 중심으로-, 한국 의류학회, No. 11, pp. 1330-1337.
- 김은정 (2004), 승복과 무복으로 착용되는 장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No. 2, pp. 151-160.
- 김은정, 김용서 (2000), 강신무복의 전통성에 관한 연구-철릭(天翼)을 중심으로, 한국 무속학회, Vol.4 No.- , pp. 5-18.
- 류문수 (2008.03.15), 제주 칠머리 영등굿 1, 2008.04.26, [http://www.cyworld.com/sunbww\\_ggaebee/277333](http://www.cyworld.com/sunbww_ggaebee/277333)
- 문무병 (2005),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 제주: 황금알.
- 문화관광부, 한국복식문화 2000년 조직위원회(2001), 우리옷 이천년, 서울: 미술문

- 화,
- 박미선 (2003), 『무당내력』과 서울 현대 무속복식의 비교, 명지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성서, 조구호 (2005), 아시아의 무속과 춤 중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 고찰, 서울: 민속원, pp. 123-139.
- 박옥련 (2000), 한국전통복식 문양사, 서울: 형설 출판사
- 방옥자 (2007), 조선시대 무속에 나타난 색채상징 연구 : 『무당내력』에 표현된 무복을 중심으로, 한신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영자, 유효순 (1986), 巫黨來歷을 中心으로 한 巫俗服飾 研究, 論文集, 제5권, pp. 131-151.
- 백영자, 최해울 (2004), 한국복식의 역사, 서울: 경춘사.
- 서경림 (1996), 濟州巫俗과 習俗規範, 法과政策 2, pp. 41-58.
- 소황옥 (2003), 한국 무속복식의 역할에 관한 논의, 比較民俗學, 제24집, pp.227-265.
- 신구범 (1996), 제주100년, 제주도: 제주도.
- 안명숙 (2007), 우리 옷 이야기, 서울: 예학사.
- 안명숙 (2007), 한국복식문화사 우리 옷 이야기, 서울: 예학사.
- 양미경 (1997), 한국 무복(巫服)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진도 셋김굿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 Vol.- No.31, pp. 5-16.
- 유효순 (1994), 우리나라 巫俗服飾의 特性, 論文集, 제 12권, pp. 237-257.
- 유효순 (1995), 한국의 무속복식 연구 : 서울굿 무복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유효순 (2000), 한국 무속복식의 조형성 고찰-충남 홍성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 Vol.50 No.6, pp. 5-20.
- 유희경, 김문자 (1999),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윤혜림 (2008), 색채지각론과 색채체계론, 서울: 도서출판 국제, pp.146-149.
- 이경자 (1983), 한국복식사론, 서울: 일지사.
- 이규태 (1994), 한국인의 옷이야기, 서울: 기린원.
- 이능화 (2008), 조선 무속고, 경기: 창비, pp. 455-463.
- 이수자 (2004),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경기: 집문당.
- 이영권 (2005), 새로 쓰는 제주사, 서울: 휴머니스트.
- 이원진 (2002), 역주 탐라지, 제주도:푸른역사, pp. 23-29.
- 이자연 (1995), 中部地方における巫服の位相に関する研究 (중부지방 무복의 위상에 관한 연구), 論文集 (Silla University Journal), Vol.40 No.1 , pp. 263-273.
- 이자연 (1995), 中部地方における巫服の變遷に関する考察 중부지방의 무복변천에



- 관한 고찰, 論文集 (Silla University Journal), Vol.39 No.1, pp. 189-219.
- 이자연 (1997), 韓國巫俗服飾의 樣相에 關한 調査研究,1 :北部 中部地域을 中心으로, 자연과학논문집, Vol. 3, pp.175-187.
- 이자연 (2005), 시베리아, 중앙아시아와 한국 중부지방 무속복식의 비교연구, Vol.7 No.4, pp. 387-393.
- 이현숙 (1981), 朝鮮時代의 戊服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수근 (1989), 특집 : 제주무속의 전통과 변화 ; 제주도 무속과 신화, 제주도연구, 6권, 단일호, p. 11-20.
- 전영자 (2008), 한국 샤머니즘 의례에서의 전통색의 역할 : 청·적·황·백·흑색 중심으로, 가톨릭대 문화영성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주근 (2001),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서울: 역락, pp. 16-25.
- 제주도 (1996), 제주100년:도승격 50주년 기념 사진집, 제주: 제주도.
- 제주도 (2006), 제주도지 제 5권, 제주: 제주도.
- 제주도·제주도 전통 문화연구소 (2001), 제주도 큰굿 자료, 제주도: 각, p. 6.
- 제주특별자치도 (2009),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2, 제주: 제주도.
- 조선왕조실록 CD-ROM 간행위원회 (1995), 국역 조선왕조실록 증보판, 서울 시스템 주식회사.
- 조윤진 (1991), 巫服의 色과 紋樣에 關한 연구 : 황해도 무당 김금화씨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윤진 (2000), 황해도 만구대택굿 무복의 상징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정호 (2002), 무속 현지조사방법과 연구사례, 서울: 민속원, pp. 12-15.
- 조풍연 (2005),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속 생활과 풍속, 서울: 서문당.
- 조효순 (1995), 한국인의 옷, 서울: 밀알.
- 진성기 (2003), 제주 민속의 아름다움, 제주도: 제주 민속연구원. pp. 232-242.
- 진성기 (2003), 제주도무속논고, 서울:민속원.
- 진성기 (2008), 제주 무속학 사진집 I 복을 비는 사람들, 제주:디딤돌,
- 최용수, 문봉순 (2005), 아시아의 무속과 춤 중 제주도 심방의 입무 의례 특징 연구, 서울: 민속원, pp.175-191.
- 최진아 (2000), 진도 셋김굿의 물질문화 연구 : 무구와 무복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2집, pp. 249-273.
- 한국민속학회 (2008), 무속신앙 04. 서울: 민속원, pp. 69-85.
- 한국민속학회 (2008), 민간신앙 1-한국민속학학술총서 05, 서울: 민속원, pp. 167-188.
- 현용준 (1989), 특집 : 제주무속의 전통과 변화 ; 제주도민의 신앙체계와 무속, 제주도 연구, 6권, p. 3-12.

- 현용준 (1989), 제주도 신긔, 경기: 열화당, pp. 86-97.
- 현용준 (2002),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경기: 집문당, pp. 26-27.
- 현용준 (2003), 제주 무속연구의 현재와 미래 :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현용준 著 <書評>, 영주어문, 제5집, pp. 255-260.
- 현용준 (2005),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경기: 집문당, pp. 87-199.
- 현용준 (2007),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제주: 각.
- 흠지기 (2005.10.22), 삼성사 추기대제, 삼성 부씨 제주도청년회, 2009.10.01,  
<http://www.jejubu.com>.



#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ostumes worn for Shamanistic Events in Jeju

Noon Seol Mi Park

(Supervised by professor Hyun-Joo Jang)

A thesis submitted o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2009. 12. 31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 of Clothing & Textiles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shamanists' costumes worn for various ritual events and to analyze their features. Je-ju island had folk beliefs because of worse agriculture with narrow land, and ocean was dangerous existence to citizen of Je-ju island. So, people, who made their life on ocean, and ocean town made performance of threat prevention, and it is shaman exorcism. As Je-ju area trusts many gods, unique life pattern of Je-ju is created because of opposition of conditions such as isolation from land, dryness, flood, and tornado. Exorcism clothes will be different from that of land, and Je-ju island might have creativity because shaman exorcism of Je-ju island is very progressed. This research focuses on Je-gwan and costumes of exorcists from understanding of costumes culture of Je-ju, and it will analyze characteristic of clothes of the exorcism.

Type of exorcism clothes is classified through literature and field survey, and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each costumes followed by event and sex distinction are on the below.

First, characteristics of each exorcism are uniform, Dan ryung, Do po, Kwe ja, Durumagi, Jegori · pants/skirts in coed festival. Confucianist town festival by men has uniform, Dan ryung, Do po with confucianist form. Non religious town festival by coed has Dan ryung, Do po, Kwe ja, Durumagi, Jegori · pants/skirts, and special clothes.

Second, Looking characteristic of costumes with sex distinction, 8 types of clothes, uniform, Jo bok, Dan ryung, Do po, Kwe ja, Durumagi, Jegori · pants, and special clothes, are costumes for men. 6 type of costumes, Dan ryung, Kwe ja, Durumagi, Jegori · skirt, and special clothes, are costumes for women.

Third, Looking characteristic of type of the Je-ju clothes of exorcism, Dan ryung was uniform for men, and it was limited clothes for women. Most of female Sim bang still wore Do po although society structure was changed after 1990's, and female Sim bang could choice Dan ryung in the same situation of male Sim bang. Kwe ja has difference between male exorcism clothes and female exorcism clothes. Kwe ja of male have separated Yup mu on front and back, and it makes activity to Kwe ja of

male. However, Kwe ja of female have rectangle silhouette with non separated Yup mu, but it gives an opening for activity. For male exorcist, he wears kwe ja after wearing Durumagi on Jegori and pants, but female exorcist wears kwe ja with skirts and Jegori. 100 years ago, female exorcists use only Durumagi and white Han sam after they finish shaman exorcism of beginning of spring, but these traces are disappeared on nowadays. It happens because Durumagi becomes one of types of Do po, and Han sam is totally disappeared due to minimization of clothes.



## 감사의 글

아무것도 모르고 열정 하나로 들어왔던 대학원의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어 기쁜 마음과 동시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2년의 대학원 생활들이 주마등처럼 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이때야 말로 이러한 결실을 얻게 도와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려야 할 때이기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항상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며 게을러지지 않도록 채찍질 해주시는 소녀같은 장현주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연구실의 막내로서 실수투성이에다 덜렁거리지만 언제나 다독겨주시고 돌봐주셔서 이렇게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멀리서 저의 논문을 위해 수고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부산대학교 권영숙 교수님과 장정아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입학하여 논문을 쓰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여러 교수님, 선배님, 동기들, 후배들 에게도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항상 행운이 있기를 빕니다.

제주도에서 혼자 공부하는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부시절부터 언제나 옆에서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순희 언니와 외로운 타지 생활에 버팀목이 되어준 진영언니 외 쏘쓰 패밀리 언니 오빠들, 이름을 다 나열 할 순 없지만 마음으로 응원을 아끼지 않는 내 소중한 친구들, 항상 옆에서 니가 최고라고 말해주고 곁에 있어 한없이 든든한 창언이, 이들이 없었더라면 제 2의 고향인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꿈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첫째로서 아직 아무것도 해 드린 것 없고 첫째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저를 무조건적인 믿음과 사랑으로 뒷바라지 해 주신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고맙고 이 벅찬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나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될게요. 오랜 대학생활과 대학원 기간 믿어주신 만큼 꼭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사랑해요!

2009년 12월  
박눈설미 드림